

리아호나

가족 안에 굳게 자리 잡은 신권 권능, 28쪽

청년 성인 센터: 모여서 배우며
친구를 사귀는 장소, 42쪽

제가 충분히 알고 있나요? 48쪽

멜라니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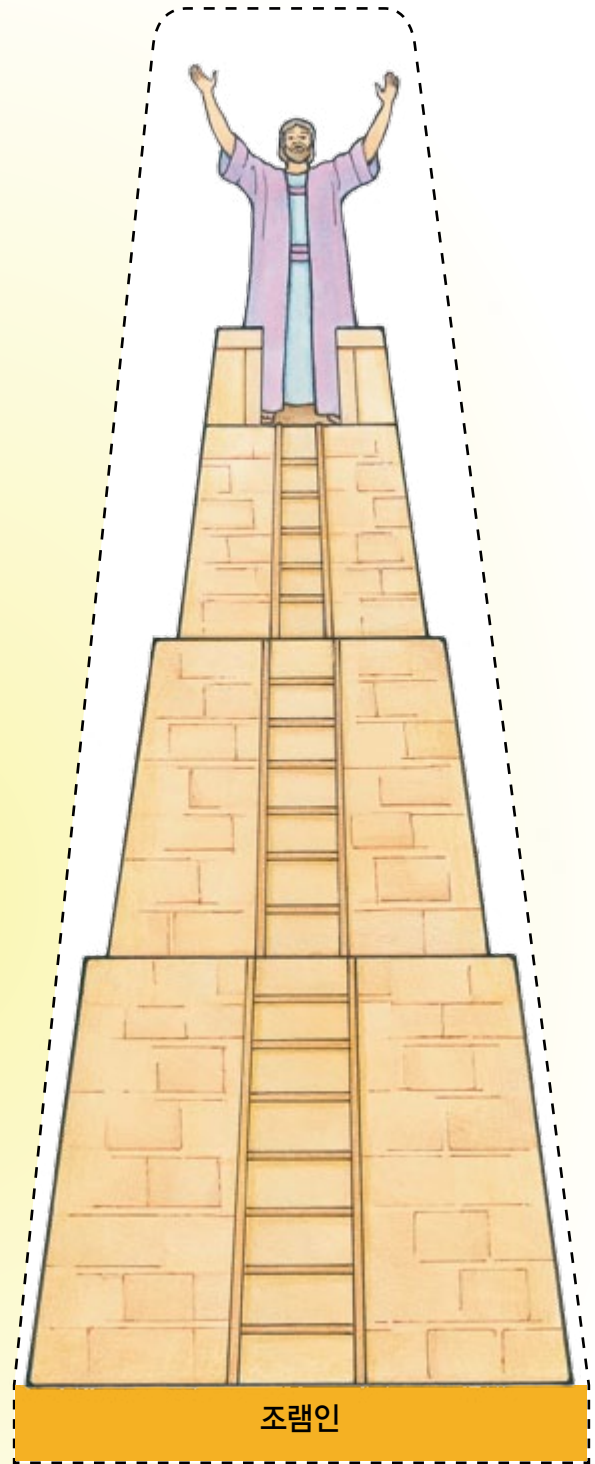




가난한 조램인



엘마와 선교사들



조램인

조램인과 래미움프롬
 엘마서 31~32, 35

올해 리아호나에는 몰몬경 경전 인물들이 실리게 됩니다. 각 인물을 잘라 내어 두꺼운 종이나 판지, 작은 종이 봉투 또는 작은 막대기에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장 인물 이야기가 나오는 경전 구절이 적힌 라벨과 함께 각 경전 인물 세트를 봉투나 가방에 넣어 보관해 두세요.



리아호나, 2012년 6월호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고 사람들에게 지지받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방문 교육—성스러운 임무

표지
앞면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먼드, 뒷면 삽화: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윌터 레인. © IRI.



특집 기사

- 13 안식일을 지키는 기쁨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티스 장로
휴가 중에도 한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 20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기
살면서 영의 속삭임을 깨닫습니까?
- 28 신권의 영광과 질서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신권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과 간증

교회 본부 기사


- 8 작고 단순한 일
- 10 우리의 믿음: 금식,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우리를 더욱 강화하는 힘
- 12 교회에서 봉사하며: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봉사의 잠재력
노먼 시 힐

- 16 복음 고전: 선택의지와 영감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 24 우리 가정, 우리 가족: 결혼 생활에서 함께 의논하며
랜디 키에스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레와 같은 음성, 고요한 음성
크리스틴 보이스



42

42 신앙으로 하나 되어 모이다
 스테파니 제이 번스
 청년 성인 센터는 서로 어울리고
 단합을 경험하며 복음을 배우고
 나누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 34** 여러분이 지닌 아론 신권 의무
 폴 벤덴버그
 집사, 교사, 제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 46** 질의응답: 복음대로 살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생각할
 때면 때때로 너무 힘에 벅차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 48**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자신의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사실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 50** 선교 사업을 위한 타임아웃
 엘리스 알렉산드리아 흄스
 18세에 윌리엄 호파아테는 프로
 럭비팀 입단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해야 할 것이 있었다.
- 53** 선교 임지에서: 영적인 치유의 기적
 엘리자베스 스티트
- 54** 포스터: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 55**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리와 성약
 135편 3절
- 56** 내 선택은 나를 어디로 이끌까?
 애덤 시 올슨
 과거의 선택으로 멀어졌으나 새로운
 선택으로 카리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 58** 더 나은 모범
 웨넌 클로워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에 더 가까운
 마음으로 귀 기울여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56



63

- 60** 진정한 친구
 사라 차우
 진정한 친구는 계명을 지키도록 서로
 돕습니다.
- 62** 우리들 이야기
- 63** 부지런함에서 오는 축복
 페르 지 맘 장로
 정직한 육체 노동은 옳은 것을 행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 64**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복음
 원리에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해요
- 66** 칼리의 운동장
 채드 이 패러스
 칼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돕기 때문에
 칼리의 친구 몇 명도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 68** 어린이 야구단에서 배운 교훈
 린지 스티븐스
 린지는 어린 남동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 81** 물론경 경전 인물

2012년 6월호, 제49권, 제6호
리아호나 10486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잡지임

재활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심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벨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라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룩,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파이프

고문: 스탠리 지 앨리스,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요시히코 기꾸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라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애덤 시 울슨

공동 편집인: 수잔 배렛, 라이언 카, 멜리사 매릴

편집 스태프: 브리타니 비에티,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드스, 매튜 디 플리트, 라켈 포터 콘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리아 맥클라한,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커그, 조슈아 케이 퍼키, 채드 이 패커스, 켈 핀보로우, 폴 벤덴버그, 마리아 에이 위디슨, 멜리사 켄데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누드슨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캬렌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선임 디자이너: 시 김볼 보트, 토마스 에스 차일드, 콜린 핑클러, 애릭 피 존슨, 스킵트 엠 무이

제작 스태프: 콜레트 네베거 오운, 콘니 바솔프 브릿지,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날슨

사건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에반 랄슨

통 관: 제548호, 제49권, 제6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2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g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g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연락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une 2012 Vol. 36 No. 6.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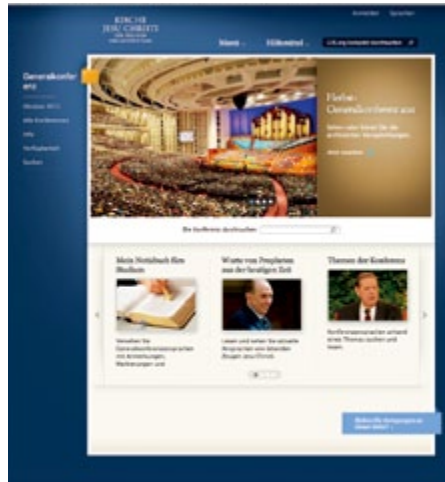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 기사 더 읽기

Liahona.Lds.org



청소년

48쪽에 실린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의 기사가 마음에 든다면 conference.lds.org에서 말씀 전체를 들을 수 있다. 2008년 10월호 연차 대회를 찾아본다.

어린이

칼리의 이야기(66쪽)를 읽고 liahona.lds.org에서 새 운동장에서 노는 칼리의 모습을 보자.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족, 68
- 간증, 48
- 결혼, 24
- 교회 자료, 12
- 교회 지도자, 4, 28, 58
- 금식, 10
- 기도, 54
- 단합, 42
- 물문경, 81
- 방문 교육, 7
- 봉사, 12, 66
- 사랑, 66, 68
- 선교 사업, 40, 50, 53
- 선택의지, 16, 56
- 성신, 16, 20, 80
- 순종, 13, 56, 58, 60
- 신권, 28, 34, 70
- 신앙, 48, 70
- 십일조, 64, 73
- 안식일, 13
- 영감, 16, 20, 38, 39, 41
- 우선순위, 46, 50, 56
- 우정, 60, 66
- 일, 63
- 조셉, 스미스, 54, 55
- 지지함, 4
- 지혜의 말씀, 60
- 청소년, 12
- 축복, 70, 72
- 평의회, 24
- 회개, 56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www.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하나님께서서 부름 받고 사람들에게 지지받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부름 받은 사람들을 지지하라는 권고를 자주 듣습니다. 수년 전, 주님의 종을 지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게 보여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열여덟 살이었던 그 학생의 겸손한 모범으로 저는 아직도 축복받고 있습니다.

그는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 침례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그는 집을 떠나 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와드에서 그의 감독으로 봉사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독실에서 그와 접견을 했습니다. 첫 접견에서는 새로운 곳에서 겪게 된 힘든 일을 이야기한 것 말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접견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감독실에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할게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이미 기도했고 그도 기도하고 왔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지만, 아무 말 않고 그의 요청을 따랐습니다.

그는 감독이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음을 안다는 간증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일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이 감독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감독이 이미 자신의 필요 사항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들어야 할 권고를 감독에게 주실 것임을 확신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그가 어떤 위협에 직면하게 될지가 구체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권고는 간단했으나 아주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항상 기도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종한 지 1년 정도 된 그 젊은이의 모범 덕분에 저는 회원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신앙과 기도로 지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저는 그 젊은이를 통해 교회에서 만장일치의 법(교리와 성약 26:2 참조)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께서 계시로써 그분의 종들을 부르시지만, 종들은 자신이 봉사를 베풀 사람들에게 지지받을 때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 지지를 표할 때 엄숙한 약속을 합니다. 주께서 그분의 종들을 이끌고 강화시켜 주시도록(교리와 성약 93:51 참조)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 부름을 수행할 때, 그들의 권고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찾고 느낄 것을 기대하겠다는 맹세를 합니다.(교리와 성약 1:38 참조)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약속을 자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일학교 교사는 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도 그렇듯이 교사도 반원들 앞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영감을 느낄 그 순간을 위해 경청하고 기다리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점차 교사의 실수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교사를 지지하신다는 증거를 더 자주 받게 될 것입니다.

손을 들어 누군가를 지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합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렸을 때, 제 아내는 와드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아내를 지지했을 뿐 아니라 아내를 위해 기도했고, 아내가 부름에 임할 때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여성이 하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고, 주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은 지금까지도 제 가족과 제 삶에 축복이 됩니다.



최근에 저는 감독인 저를 지지해 준 그때 그 젊은이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선교사로, 또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 받고 주님과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아버지로서도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마치면서 “저는 아직도 회장님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준 그들의 봉사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지한 사람에게 우리의 봉사가 필요할 때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¹

주님의 왕국에서 그분의 종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할 데 없는 주님의 권능으로 지지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축복이 필요합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184쪽.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이 말씀을 나눈 후, 다음 인용문을 읽어 본다. “만약 여러분이 겸손하고 충실하며 부지런하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도구로 삼으실 것이다. …… 여러분은 회중들의 지지를 받고 성별될 때 더욱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0], 20쪽) 가족들에게 무거운 물체 주변에 둥그렇게 모이라고 하고, 한 사람에게 그 물체를 들어 보라고 한다. 나머지 가족들도 한 사람씩 가담하여 그 물체를 함께 들어 보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도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토론한다. 다른 사람의 부름을 지지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아이어링 회장의 권고를 강조한다.

주일학교 교사님께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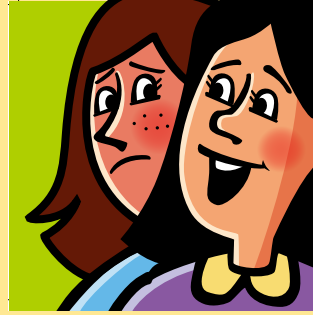
익명

주 일학교 시간에 우리 반은 항상 경건하지만은 않다. 나는 매주 공과를 듣는 것이 좋았지만 간혹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데 반원들은 종종 잡담을 하거나 오락을 했다. 슬프게도 나 역시 종종 그런 부류에 속할 때도 있었다.

한 주는 여느 때보다 훨씬 심했다. 공과가 끝날 무렵에는 아무도 공과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교사님은 급기야 눈물을 보이셨다. 나는 교실에서 나오면서 교사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 주 일요일, 교사님은 그 주에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며 우리에게 교회 영화를 보여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다. 교사님이 보여 주신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에 그 영화에 대해 생각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갑자기 내가 예전보다 훨씬 영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곧 나는 구주를 닮기 위해 내 삶을 바꾸어야겠다고 다짐했고, 그날 주일학교 시간을 통해 내 간증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님과 매주 우리 반을 위해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 ■



지지한다는 것은 돕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이어링 회장님은 우리가 손을 들어 올려 사람들을 지지할 때, 그것은 그들이 부름 받은 일을 잘 해내도록 그들을 돕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그림 중에서 지도자와 교사를 지지하는 아이들은 누구인가요?

- 우리가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선지자도 있고,
- 감독단이나 지부 회장단, 와드나 지부 선교 책임자, 초등학교사와 초등학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 이분들을 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 보거나 부모님과 이야기해 보세요.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신앙, 가족, 구제

방문 교육— 성스러운 임무

방문 교사로서 우리는 수행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임무가 있다. “와드의 목자로 성임된 감독이 주님의 양을 모두 한꺼번에 돌볼 수는 없습니다. 감독은 자신을 도와줄 영감받은 방문 교사들에게 의존합니다.”¹ 누가 각 자매들을 돌보도록 임무 지명을 받아야 할지 계시를 구하고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 자매와 가족의 필요 사항에 대해 의논할 때 영감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감독의 승인을 받아 임무 지명을 하는데, 이때 자매들이 방문 교육이 중요한 영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²

방문 교사는 진실한 마음으로 각 자매들을 알아보고 사랑하며, 그 자매의 신앙이 강화되도록 돕고, 필요하다면 그 자매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 방문 교사는 자신이 방문하는 각 자매의 영적, 현세적 필요 사항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지 알기 위해 개인적으로 영감을 구한다.³

“방문 교육은 횡수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출 때에야 비로소 주님의 일이 됩니다. 사실 방문 교육은 끝이 없습니다. 방문 교육은 임무라기보다는 생활 방식에 가깝습니다.”⁴



성구에서

마태복음 22:36~40; 요한복음 13:34~35;

엘마서 37:6~7

주

1. 줄리 비 벡, “상호부조회: 성스러운 사업”, 리야호나, 2009년 11월호, 113~114쪽.
2.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9:5; 9.5.2 참조.
3. 지침서 제2권, 9.5.1 참조.
4. 줄리 비 벡, 리야호나, 2009년 11월호, 114쪽.
5. 엘리자 알 스노우,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08쪽.
6. 엘리자 알 스노우, 내 왕국에 속한 딸들, 45~46쪽.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교사는 고귀하고도 거룩한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방문 교사들에게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지혜, 겸손,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하여 자매들의 현세적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채워 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평화와 위안을 줄 말이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만약 어떤 자매가 냉담하다면 마치 어린아이를 가슴에 껴안듯 여러분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십시오.”⁵

초기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갈 때, 성신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며 우리가 방문하는 각 자매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스노우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권능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지혜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능을 얻을 것입니다.”⁶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방문 교사로서 맡은 중요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나는 내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2. 방문 교사로서 나는 자매들이 각자의 방문 교육 책임을 이행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교회 모임을 위한 음악 고르기

- 성찬식 모임을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통해 흘러 들어올 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성찬식 모임 때 부르는 개회 찬송은 하나님과 복음의 회복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나타낸다. 또한 성찬 찬송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구주의 희생을 숙고한다. 폐회 찬송을 부르면서 회중은 그날 새롭게 한 성약을 지키겠노라고 다시 다짐할 수 있고, 성찬식에서 배운 복음 원리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 상호부조회 혹은 신권회 때 쓸 찬송가를 고르기 위해 교사와 상의한다. 교사는 공과와 관련된 찬송가를 제안할 수 있다. 교사가 따로 생각해 둔 찬송가가 없다면, 지도자들이 공과 주제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찬송가를 제안할 수 있다.
- 모임 시작 전에 감리자에게 선택한 찬송가를 불러도 되는지 확인한다.
- 모임에서 부를 찬송가를 반주자가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모임이 있기 며칠 전에 곡목을 알려 준다. 찬송가 230~231쪽,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4.4; 14.6 참조

경전에 나오는 여성들에 대해 아십니까?

경전에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설명과 그들의 이름을 짝지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경전 참조 구절을 활용하세요.



A. 마리아
주님의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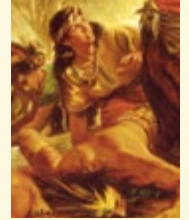
B. 새라이아



C. 안나



D. 이브



E. 에이비시



F. 사라



G. 에스터



H.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I. 에머 스미스



J. 룯

1. 내가 위험한 여행길에 오른 아들들 때문에 슬퍼하자 남편이 위로해 주었습니다.(니파이전서 5:1, 6 참조)
2. 나는 라모나이 왕의 여종이었으며, 왕이 개종하기 수년 전에 주님께로 개종했습니다.(엘마서 19:16 참조)
3. 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시어머니를 “붙좃았[으며]”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룯기 1:14, 16 참조)
4. 내 이름은 신약전서와 몰몬경에 나옵니다. 나는 “심히 곱고 희[며]”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니파이전서 11:13; 엘마서 7:10)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5.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사는 우리 가족을 보러 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누가복음 10:42 참조)
6. 내가 목숨을 걸면서 백성을 살려 달라고 왕에게 간청했을 때 백성들은 나를 위해 금식했습니다.(에스터 4:16 참조)
7. 내 이름은 “모든 산 자의 어머니”(창세기 3:20)라는 뜻입니다.
8. 나는 교리와 성약에서 “택함을 받은 여인”이라고 불렸으며, “거룩한 찬송가를 선정”(교리와 성약 25:3, 11)했습니다.
9.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했을 당시 나는 84년간 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누가복음 2:36~38 참조)
10. 주께서 내 남편의 이름을 바꾸실 때 나의 이름도 “왕비”를 뜻하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창세기 17:15 참조)

답: 1. B, 2. E, 3. J, 4. A, 5. H, 6. G, 7. D, 8. I, 9. C, 10. F

금식,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우리를 더욱 강화하는 힘

금식은 구약전서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해 있었습니다.(예: 다니엘 9:3; 요엘 2:12 참조)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 영적으로 강해졌고 기도는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이사야 58:6~11 참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금식을 하고 식비에 해당하는 돈을 교회에 내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교회에서는 매달 한 주, 대개 첫 주를 금식 주일로 지정합니다. 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에는 연속으로 두 끼[24시간] 분의 음식과 물을 먹지 않고,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금식 헌금을 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금식 헌금은 최소한 여러분이 먹지 않는 두 끼 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후한 마음을 갖고 이보다 더 많이 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한 금식일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어느 날에든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금식하거나 긴 시간 동안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¹ 금식을 하면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사람은 금식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은 다양한 목적으로 금식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겸손한 태도를 키우기 위해, 약점이나 죄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에서 맡은 책임에 대해 영감을 받기 위해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다 보면, 자주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며, 또한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

주

1. 신앙에 충실함(2004), 44쪽.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마태복음 6:16~18; 알마서 5:46; 6:6을 참조한다.



사진 출처: 릴리트 메들우드, 존 루크, 헬렌 시 앤더슨, 이 책을 위하여, 영스페이스

금식 주일에는 성찬식
모임에서 간증을 나눕니다.



금식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축복을
간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음식과 물을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내도록 권유받습니다.
교회는 이 돈으로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금식은 기도와 함께 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참된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금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유대인들은 에스더가
백성을 보호해 달라고 왕께
간청할 수 있게 그녀를 위해
금식했습니다.
(에스더 4:16 참조)

“[금식]은 이성과 예지를 근거로
한 단순하고도 완벽한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 방법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 영이
육신을 지배하게 하고, 성신과의
교통을 한결 촉진시키며, 세상의
백성들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영적인 힘과 권세를 보증하여
줍니다. 금식은 항상 기도와
함께 해야 하므로, 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집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198쪽.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봉사의 잠재력

노먼 시 힐

나 이지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작렬하는 아프리카 태양 별” 아래에서 산다고 즐겨 말한다. 적도 부근의 기온 차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미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월에 아프리카 전역에서 봉사 활동을 할 때에도, 조금이라도 서늘한 아침 시간에 최대한 많이 일하려고 7시부터 서둘렀다.

우리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스테이크에 있는 아바 와드 건물 근처 공터에서 삽과 갈퀴, 벌채용 칼을 들고 잡초를 베어 가며, 잡초 더미를 나르는 일을 하게 되었다. 세 시간 동안 일하니 4,800평 가운데 3,600평 정도를 치울 수 있었다.

“조금 남은 일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른 날 계획해서 마저 치우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감독님이 물어보셨다.

감독님의 말을 들은 교사 정원회 회장인 이마뉴엘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이 부분을 마저 치우지 않는다면 아무도 ‘오늘 정말 일 많이 했구나’라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냥 끝내 버려요.”라고 그는 말했다.

180센티미터는 족히 될 만큼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얼마나 일을 더 해야 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힐 형제님, 우리 둘만 작업해서 폭이 60센티미터 정도 되는 좁은 길을 내는데 얼마나 걸릴지 한번 시험해 봐요. 우리가 빨리 해치우면 다른 사람들도 생각보다 일을 더 빨리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여길 거예요.” 이마뉴엘이 말했다.

두 조로 나뉜 청년들은 하루 종일 양쪽 끝과 끝에서 일했다. 미로와 같은 잡초밭을 가로질러 서로 만난 청년들은 아직 없었다. 허리가 빠근해져서 나는 무릎으로 기면서 벌채용 칼로 잡초를 계속 제거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청년 몇 명이 다가와서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물었고, 이마뉴엘과 내가 서로를 향해 길을 내는 것을 보고 이내 거들기 시작했다. 양쪽 끝에서 시작했던 우리는 몇 분 안에 서로 만날 수 있었고 작은 환호성이 일어났다. 우리가 성공한 것을 보고 다른 청년들도 짝을 지어 일했고 서로 만날 수 있었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이 끝났다. 만족감으로 가득 찬 우리는 특히 다른 이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 이끌었던 이마뉴엘에게 고마워하며 서로를 축하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지혜를 갖추었다고 생각했던 감독님과 나는 이 청년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줄 알았다. 우리



청소년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집사와 제사 정원회 회장단이 청년들에게

그냥 기도하거나 성찬 전달만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이들은 참으로 특별한 영이며, 기회만 주어지면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Elder Neal A. Maxwell(1926-2004)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Unto the Rising Generation,” *Ensign*, Apr. 1985, 11.

눈에는 더워서 기진맥진한 소년들만 보였지만, 이마뉴엘은 친구들이 존귀함과 자신감을 키울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그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 나중에 일을 끝내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교회 청소년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들의 기여와 솔선수범으로 우리 모두가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청소년들은 지금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티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안식일을 지키는 기쁨

후 기 성도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환경에서 후기 성도로 성장했던 것이 제게는 어린 시절의 즐거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생일과 공휴일, 축구 경기 날, 가끔 하던 가족 바베큐 파티에 가족과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이던 일이 특히 더 기억이 납니다. 또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추억은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는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기본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저는 화요일 저녁마다 하던 축구를 언제나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또한 일요일에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 모임, 주일학교, 신권회 시간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좋아서 모임이 끝난 후에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제 유년시절에 보여주셨던 선한 모범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 되고서 저는 “[주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우리의] 성찬을 바치느니]”(교리와 성약 59:9)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과 1년간 교회 모임에 단 한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진심으로 기뻐하던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충실히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켰습니다.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얼굴로, 참으로 기쁨이 가득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리와 성약 59:9, 13~15 참조)

안식일 전통

여러 해 동안 저희 부부는 자녀들과 브라질 남부에 있는 저희 집 부근의 작은 해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때로 일 때문에 이사를 하기도 했으나 그 작은 해변에서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살아도, 우리는 큰 기대와 기쁨을 안고 매년 그곳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일가 친척과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모두가 함께 하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모두가 최대한 일찍 와서 최대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조그만 해변에서 저희 가족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훌륭한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친척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아니었기에 우리와 종교적 믿음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놀고 즐기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축복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그분을 경배함으로써 오는 기쁨과 축복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안식일을 여기는 일을 합리화하는 것은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요일에 단 한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가족이 주중보다 주말에 해변에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우리가 일요일 가족 모임에 오기를 바랐으며 심지어 저희 아이들조차도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아이들은 어렸고, 복음 진리대로 사는 것을 막 배우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사촌들과 친구들이랑 어울리며 일요일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유혹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컸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안식일을 여기는 일을 합리화하는 것은 쉬웠을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에 그 해변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는 96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이웃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일요일에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대신 해변에서 놀았다 하더라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희는 일년 내내 꼬박꼬박 교회에 참석했고 친척들은 1년에 고작 몇 주만 함께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요일에 단

한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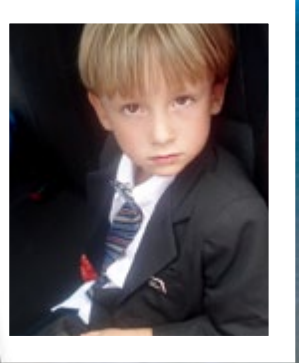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그러나 이 날 곧 주의 날에는 네 헌물과 네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날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네 금식이 온전하게 되도록,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네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할지니라.”(교리와 성약 59:9~13)

저희는 이 계명을 지키기로 했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도 이내 친구나 가족들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이해했습니다.

순종으로 받는 축복

해변에서 일요일이면 우리는 일찍 일어나 일요일 예배를 위해 옷을 차려 입고, 차로 제일 가까운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교회에 갔다 오는 동안, 그리고 그 날 내내 주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평화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희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한 이러한 느낌이 결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뭔가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더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춘 아이들 몇몇이 함께 교회에 가도 되겠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들도 저희가 느낀 평화와 기쁨을 교회 모임에 다녀오는 저희의 모습에서 느꼈다는 것을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커다란 축복이 임했습니다. 조카 두 명이 청소년이 된 후에 “후기 성도가 되고 싶어요.”라고 부모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곧 그 가족 모두가 침례를 받았으며, 최근에 그 자녀 중 한 명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성전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매년 그 해변으로 갑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저희 가족이 그곳에서 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대신 저희 가족은 함께 가려는 친지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월을 돌아보며 저희가 내린 선택을 생각해 볼 때, 옳은 일을 하며 자녀에게 그와 같이 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용감하게 해낼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는 그 결정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 강화했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선택을 소중히 하자 주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왔고, 그것은 가족들이 개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영혼을 채우지 못할 여타 세상적인 일요일 행사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만족감을 축복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축복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그분을 경배함으로써 오는 기쁨과 축복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시편 144:15) 간증합니다. ■

저희는 여전히 매년 그 해변으로 갑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저희 가족이 그곳에서 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대신 저희 가족은 함께 가려는 친지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선택의지와 영감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1915년 7월 29일에 미국 미시간 주에서 태어났다. 1946년에 칠십인 제일 평의회 일원으로 지지받고 1972년에 사도로 성임된 맥콩키 장로는 1985년 4월 19일에 타계했다. 다음은 맥콩키 장로가 1973년 2월 27일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말씀이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1915~1985)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다 한 뒤에 주님의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응답은 바로 우리가 옳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확신을 주는 증표입니다.

하 나님 아버지 면전에 거했을 때 우리는 선택의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특권과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 우리는 주어진 재능과 은사, 능력, 지각, 판단력, 선택의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삶에서 주님을 찾고 그분의 영을 구하고 계시와 영감의 영을 찾으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합당한 집행자는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신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충실하다면, 신회의 한 구성원인 성신과 늘 함께할 수 있는 권리, 즉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영감의 영, 계시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지상에서 무엇을 행할지 결정할 때 선택의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세 가지 사례 연구를 제시하려 하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삶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가운데 몇 가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나니”

사례 연구 1: 올리버 카우드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 그는 번역 과정에서 영이 선지자에게 머무는 동안 선지자가 구술하면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물론경을 번역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다소 미성숙했던 카우드리 형제는 영적인 면에서 그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그 이상의 것을 구하고 바랍니다. 그는 직접 번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카우드리 형제가 선지자에게 이에 대해 물었고, 선지자가 주님께 이 일을 여쭙었을 때, 두 사람에게 계시가 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 믿으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에 관한 지식을 네 하나님이요 네 구속주인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확실히, 참으로 그와 같이 분명히 너는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카우드리가 받게 될 한 가지는 “고대의 것이며 나의 영의 나타냄으로 이야기된 내 경전의 그 부분이 들어 있는 새겨진 옛 기록, 즉 고대 기록에 관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하신 후에 주님은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한 가지 원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이제 보라, 이것은 계시의 영이니”(교리와 성약 8:2~3) ……

…… 그래서 카우드리는 그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전혀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을 따르고자 노력했고, 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주께 여쭙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응답하셨고, 왜 카우드리가 번역할 수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나니,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교리와 성약 9:7)

겉보기에는 신앙으로 간구하라는 것이 올리버 카우드리가 지시받은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간구하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선택의지를 사용합니다. 원하는 대로 성취될지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물몬경을 번역할 때뿐만 아니라 아내를 선택하거나 직업을 결정하는 일 등 삶에서 일어나는 만여 개의 중요한 일 중 어느 하나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왜 나에게 묻느냐?”

자 이제, 사례 연구 2: …… [야렛인]은 그들이 건너게 될 물에 도착했고 주님은 [야렛의 형제]에게 “거룻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거룻배]는 좀 특수하고 힘든 환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것과
영감의 영으로
인도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용될 것이었기에 [야렛의 형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공기였습니다. 이는 그가 어찌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렛의 형제는 주님과 상의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일이 야렛의 형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하면 공기를 얻을지니라”라고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과 이야기하시고 답을 주신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은 야렛의 형제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 “배 안에 빛이 있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나이까?”

그러자 주님은 이에 대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이더서 2:23) 다른 말로 하면, “…… 나는 너에게 선택의지를 주었고, 너에게는 능력과 역량이 있느니라.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렛의 형제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셸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전에는 그가 거기서 “한 바위로부터 작은 돌 열여섯 개를 녹여내었으니, 그것들은 투명한 유리같이 희고 맑았더라.”(이더서 3:1)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야렛의 형제가 간구했을 때 주님은 이를 들어주셨고, 이 일로 그는 주님의 손가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동안 야렛의 형제는 그때까지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전에 있었던 그 누구에게보다 더 자세히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야렛의 형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또 주님과 상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택의지와 영감 사이에는 미묘한 균형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다 한 뒤에 주님의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응답은 바로 우리가 옳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확신을 주는 증표입니다. 때로는 기쁘게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진리와 지식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서 상의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 3: 교회사 초창기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미주리 주에 있는 한 지역에 집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중 에드워드 파트리지에 관하여 말한 대로 이 땅은 그와 또 그가 자기 보좌로 임명한 자들이 거주할 땅이요, 또한 나의 창고를 관리하도록 내가 임명한 자들이 거주할 땅이니라.

그런즉 그들은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서 상의하는 대로 자기 가족을 이 땅으로 데려올지니라.”(교리와 성약 58:24~25; 강조체 첨가) ……

보시다시피 주님은 시온으로 “집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준비는 집합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의 선택의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주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

주님은 교회의 감리 감독단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후, 그 상황에 적용되는 원리를 주셨으며, 그 원리는 모든 상황에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로 밝혀진 영광스러운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내가 범사에 명령해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함이라. 무릇 범사에 강요당하는

자는 게으르고 현명하지 못한 종이니, 그런즉 그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은 모름지기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26, 27; 강조체 첨가) ……

세 가지 사례 연구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제시된 결론을 살펴보시다. ……

……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배운다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내린 그 결론이 올바른 것이라면, 또한 여러분이 도달한 그 결론에 대해 주님과 의논하고, 그분께서 그것을 승인하신다는 증표를 그분에게서 받는다면, 우선 여러분은 계시를 받게 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날에 들리어 영생이라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은 이 같은 일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스스로 선택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역량을 이용할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고, 그분께서 승인하신다는 확인의 증표를 그분에게서 받기 위해,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에 계시의 영을 불러오기 위해 영의 속삭임을 따르고 끝없이 겸손해집시다. 그렇게 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삶에 평화가 깃들고 내세에는 영광과 존엄과 존귀가 임할 것입니다. ■

철자, 구두점, 대문자를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함.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기

영을 통해 매일 영감을 받는 것은 후기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다. 영의 속삭임을 기꺼이 들으려 하고 그 음성을 듣기에 합당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다.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은 세 회원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나는 돌아가야만 했다

포 르투갈 룰레에서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로 봉사할 당시, 나는 어느 날 밤 스테이크 활동을 마친 후 청소년 몇 명을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굉장히 늦은 시각까지 아이들을 다 데려다 준 후 집으로 오는데, 차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골의 컴컴한 도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작은 다리를 지나갈 때, 내 오른편 강 옆에서 불이 깜박거리는 것이 보였다. 마치 화재가 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나는 화재가 났다손 치더라도 금세 진화되리라 생각하며 다시 운전엔 집중했다.

그러나 몇 미터도 채 못 가서 갑자기 “멈춰!” 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나 혼자 운전하고 있었기에 좀 놀라긴 했어도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했다. 그러자 이번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멈추고, 다시 돌아가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차를 돌렸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여쭙었다. 그 다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차에서 내렸고, 주님의 대답이 즉시 임했다. 다리 밑에서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칠후 같은 밤이라 다리 밑에서 주황색으로 깜박이는 작은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리 밑은 가파른 협곡이었고, 어두워서 앞도 잘 보이지 않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난감했다. 재빨리 119에 연락을 했고, 구조대원들이 신속히 도착했다.

5명이 탄 차가 도로에서 협곡으로 추락했고, 깜박이던 작은 불빛은 바로 그 차에서 나던 것이었다. 2명이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지만 내가 성신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 끔찍해졌을 것이다.

주님은 조용한 목소리로든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든 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간증한다. 그날 밤 내가 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주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신이 우리와
교통하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
네스토르 끼랄리스, 포르투갈

나는 듣기로 결정했다

몇년 전, 우리 집안의 요리법을 담은 가족
요리법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귀찮게 괴롭혔다. 나는 그 생각을
뿌리쳤다. 종종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한심하게 그런 요리법 책 만들 시간이 어디 있담?
애들 여섯을 돌보는 것만 해도 바쁜데! 요리법 책
따위는 집에서 빵구울 시간이 있는 엄마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

하지만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몇
년간 지워지지 않았고, 어느 날 마침내 나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가족 중에 이 일에 동참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다. 교회 회원은 나밖에 없었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으며 형제자매도 없고 일가친척은
대부분 멀리 떨어져 살았다. 하지만 나는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로 했다.

나는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가족 요리법
책을 만들려고 하니 요리법을 좀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해에 나는 몇 가지 요리법을
받았다. 친척 중 일부는 가족 이야기와 사진까지
보내 왔다. 여기서 착안하여 나는 고령인
친척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가족 역사
자료를 수집했고, 그것도 요리법 책에 끼워 넣기로
했다.

책을 만들면서 나는 요리법을 준 친척 중
상당수를 모르고 지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책 안에 가계도도 넣기로 했다. 모든
친척에게 정보를 달라고 해서 가계도를 작성한 후
원고에 포함시켰다.



영은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용하기만 한다면, 성신의 은사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며 여러분의 행위를 바로잡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나 느낌으로 오는 영의 음성으로 말입니다. ……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중대한 죄를 범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교회 회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7~18쪽.

완성된 책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가계도가 있는 면을 펴는 순간, 나는 영에 압도되었다. 왜 내가 이 “바보 같은” 요리법 책을 만들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깨닫게 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단순히 요리법 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조상의 이름과 그분들 시대에 관한 것들을 한데 모으는 일을 한 것이다. 이분들은 이제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 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보전하게 된 것이다.

현재 나는 정기적으로 사촌들 몇몇과 연락하고 지내며, 다른 친척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요리법 책을 들여다보며 나는 종종 이런 경전 구절을 떠올린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영의 속삭임을 듣고 간단한 요리법 책을 만들면서 느낀 기쁨과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면 아직도 놀랍기만 하다. ■
낸시 윌리엄스 깁스, 미국 콜로라도 주

그냥 옳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나는 평화와 위안의 순간, 그리고 생각이 포렷해졌던

순간을 경험했다. 가끔 영이 가장 강하게 내 마음을 파고드는 순간은 어떤 것이 참되다 혹은 옳다라는 느낌이 들 때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런 느낌이 들 때에는, 뭔가가 참되다거나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된다.

이런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든 경험은 내가 집을 사려고 찾고 있을 때 있었다. 당시 미혼이었던 나는 집을 사려고 몇 년간 고심하던 중이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내가 원하는 집을 이야기했고, 중개인은 내 조건에 딱 맞는 훌륭한 집들을 찾아 주었다. 하지만 중개인이 그 집들을 보여 주었을 때 나는 그 집들이 내가 사야 할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거절했다. 중개인은 내가 원하는 딱 맞는 집을 찾기 위해 집들을 보여주었지만 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느냐며 물었다. 나는 사실 뭐가 부족한지 이렇다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마침내 어느 날 오후, 우리는 그제까지 보아 온 여러 집보다 훨씬 못한 집을 둘러보게 되었다. 오히려 이전 집들보다 더 비싸기까지 했다. 그 집은 내가 원하는 조건에 들어맞긴 했지만 전에 본 집들만큼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집을 둘러본 후 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그 집을 사겠다고 했다. 중개인은 내가 그토록 빨리





결정하려는 것을 보고 다소 놀란 듯했다. 지난 몇 달간 거절하던 나의 태도를 생각하면 중개인이 놀라는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내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그 집이라는 느낌이 거의 날 압도할 정도로 임했다. 재고해 볼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집주인에게 구매 의사를 밝혔고 내가 제시한 입찰 금액이 여태껏 나왔던 것보다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찰이 받아들여졌다. 나는 가족들에게 왜 그 집에 살아야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왜 거기에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사온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독신 와드에서 한 자매를 만났던 것이다. 1년 남짓 후, 우리는 성전 제단에 무릎을 꿇고 남편과 아내로 인봉되었다.

주님은 참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주님이 그 집을 사도록 도와주셨을 때 그분이 나를 영원한 결혼으로 이끌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내가 알았던 것이라고는 이 단계를 거치도록 인도되었다는 것뿐이었다. 이제는 그 인도가 주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임을 나는 안다.

■ 제프리 스타케트, 미국 유타 주

계시의 여덟 가지 목적

십 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영이 인간과 소통하는 목적을 여덟 가지로 설명했다.

간증한다. 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복음이 참됨을 증거할 수 있다.

예언한다.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예언하는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선지자와 축복사뿐 아니라 우리도 예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위로한다.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영에게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영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교리와 성약 121:7) 신권 축복,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현, 죄 사함 등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있다.

마음을 고양한다. 영은 좌절감이나 부족하다는 느낌, 영적으로 정체된 느낌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경전을 읽거나 건전한 음악, 예술, 문학을 접할 때 영을 느낄 수 있다.

알려 준다. 특정한 순간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영감으로 받을 수 있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이는 너희가 말할 바가 바로 그 시각에, 참으로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00:6)라고 말씀하셨다. 때로 성스러운

어떤 순간에 하늘의 사자가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영의 조용한 속삭임을 통해 필요한 정보가 주어진다.

제지한다. 이 같은 종류의 계시는 해서는 안 될 일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게 한다. 이 계시는 우리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인도를 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종종 불시에 올 수 있다.

확인한다. 특정한 행동에 대해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 알기 위해 기도한 후, 영을 통해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행동하게 한다. 이 같은 계시는 구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영으로부터 이런 형태의 계시가 오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Revel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1981-82 Fireside and Devotional Speeches*(1982), 20-26.

결혼 생활에서 함께 의논하며

랜디 키에스

캐 나다, 빅토리아에서 결혼 및 가족 상담 치료사로 일하는 나는 부부인 밥과 메리(이름 변경)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함께 결정을 내릴 때 자주 의견이 충돌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밥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는 그 일을 감리하면서 해결하려

애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내 생각을 말하면, *아내는 신권을 지지하려 하지 않아요!*”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서 나는 밥이 감리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한 부부는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이루며 단합이라는 정신 속에서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는 신권 평의회 토의 방식에서 배운 ‘함께 협의함’에 대한 원리 몇 가지를 이 부부와 나누었다. 가정의 평의회는 교회의 평의회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대부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가 이 원리를 가정에 적용하려고 애쓴다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튼튼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리 1: 만장일치의 의사 결정

신권 평의회에서

회장단, 평의회, 감독단은 만장일치로 조화롭게 합의한다는 원리에 입각해 모든 일을 처리한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십이사도 정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단합된 결정을 내린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교회 행정에서부터 세상 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솔직하고 숨김없이 토론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몇 주, 몇 달, 때로는 몇 년에 걸쳐 토론했습니다.”¹ 단합은 아주 중요한 문제여서 사도들은 단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평의회도 이와 똑같은 단합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 정원회들 중 어느 하나가 내리는 결정은 그 정원회의 만장일치의 지지로 내려져야 하나니, 곧 각 정원회의 모든 회원이 그 결정에 동의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그들의 결정이 서로 똑같은 권능 곧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교리와 성약 107:27)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단합하지 않[는다면] …… 영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²라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목적에서 하나 되고 기도를 통해 단합한다면 성신의 인도와 영감이 함께할 것이다.

가정에서

단합의 원리는 신권 평의회에도 적용되며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총관리 역원들은 가족 평의회가 교회의 기본 평의회라고 가르쳤다.³ 가장 기본이 되는 평의회가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이 평의회는 둘이 함께 구성한다.



보통, 부부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중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더욱이 배우자 서로가 의견을 일치시키기보다는 자기 말이 옳다는 것에 더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멈추[고], …… 배우자 사이의 대화 또한 멈[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간섭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대체로 초대받지 않은 곳에는 들어오시지 않는다.”⁴ 사실,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겸손하게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면 주님의 인도라는 필수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영의 인도로 단합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그 결정이 논리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한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조지 큐 캐넌 회장은 주님은 단합된 지도자들의 권고를 지지하시며, 그들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그 계획을 발전시키고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보충하셔서 효과적으로 만드신다.”고 설명했다.⁵ 이 약속은 부부를 비롯해 모든 평의회에 적용된다.

하지만 의사 결정이 항상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벨라드 장로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두 사람은 가족 평의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치셨다.⁶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을

신권 평의회가 결정을 내릴 때 단합을 위해 힘쓰듯이, 결혼 생활에서도 단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부부도 매번 결정을 내릴 때마다 평의회를 열 필요는 없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사소한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부부는 늘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 부부는 서로 의논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인도를 받아, 또한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 그러한 일에 대한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한다.

원리 2: 완전한 참여

신권 평의회에서

2010년 11월에 방송된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벅 자매님은 다음 경전 구절을 나누었다.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며,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라.”(교리와 성약 88:122) 칠십인 회장단인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님은 벅 자매님 말씀에 뒤이어 적극적인 참여는 영감을 키워 준다고 말씀했다.⁷ 모두가 동등하게 기여할 기회를 받을 때 각자의 생각들이 한데 결합하여 더욱 강해진다.

가정에서

참여의 원리는 배우자 둘 다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한 배우자가 모든 결정을 다 내리고 다른 한 쪽은 그냥 동의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부부가 함께 영감을 구한 후 서로의 생각과 느낌에 귀 기울일 때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하워드 더블유 헨터 회장님(1907~1995)은 이렇게 말씀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을 함께 완전히 알고 완전히 참여하는 동반자로 여깁니다. 주님은 아내가 남자를 위한 배필(베필라는 말에는 동등한 관계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로서 완전한 동반자 관계 안에서 동등하고 반드시 필요한 반려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⁸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배우자의 참여를 권유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원리 3: 의롭게 감리함

신권 평의회에서

감리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신권 평의회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감리하는 사람은 “교회를 감리하고”(앨마서 6:1) 단합, 동등한 참여, 혐의의 원리가 실천되고 있는지 살피는 책임을 맡는다. 벨라드 장로님은 이 점을 일깨워 주었다. “신권 소유자들은 가정이나 교회 부름에서 마치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곤봉을 휘두르듯 신권 권세를 휘두를 권리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신권은

봉사하기 위한 것이지 예측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동정을 위한 것이지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돌보는 것이지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신권 권세의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⁹

가정에서

가정에서 감리자로서 남편이 맡는 족장의 의무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과 가족이 번영하도록 힘쓰는 것이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1873~1970)은 모든 남성은 언젠가 구주와 개인적으로 신권 접견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주님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다했는지 보고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해지도록 적극 힘쓰고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셨습니까?”¹⁰

남편은 결혼 생활에서 발전과 행복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 위에 군림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부 둘 다 결혼 생활에 책임을 진다. 의로운 결혼 평의회에서 부부는 일련의 덕성을 공유하며, 이 덕성을 실천함으로써 서로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벨라드 장로는 우리에게 “신권 소유자들은 가정이나 교회 부름에서 마치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곤봉을 휘두르듯 신권 권세를 휘두를 권리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121편 41절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이 같은 덕성을 공부할 수 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힘과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신권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결혼 생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의롭지 않은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힘은 의 안에서 협력할 때 오며, 그럴 때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결혼 생활의 영위

주도권 문제, 혹은 시간, 돈, 자녀, 인척 등과 같은 문제에 이견을 보이는 부부는 결혼 생활에서 따라 왔던 기본 원리를 재점검해야 한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함께 의논하는 방식을 정립할 때 결혼 생활이 발전하지 않겠는가?

단합, 참여, 의롭게 감리하는 원리를 통해 우리는 배우자와 올바른 합의에 도달하고 삶에

영을 불러올 수 있다. 사랑과 친절의 덕성을 실천할 때 많은 말다툼이 사그러들 것이고 결혼 생활에서 더 깊이 만족감을 느낄 것이며 영원히 지속될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

주

1. 엠 러셀 벨라드, 평의회와 함께 협의함,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26쪽.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패널 토론” 2010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lds.org/broadcasts/archive/worldwide-leadership-training/2010/11.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년), 211쪽, 참조.
4. 엠 러셀 벨라드, “가족 평의회: 벨라드 장로 부부와의 대답”, 리야호나, 2003년 6월호, 17쪽.
5. Gospel Truth: Discourses and Writings of George Q. Cannon, sel. Jerreld L. Newquist(1957), 163.
6. 엠 러셀 벨라드, “가족 평의회”, 리야호나, 2003년 6월호, 14쪽.
7. “패널 토론”, 2010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8. 하워드 더블유 헌터,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50~51쪽.
9. 엠 러셀 벨라드, “협회의 힘”,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8쪽.
10. David O. McKay, Robert D. Hales 인용, “Understandings of the Heart”(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address, Mar. 15, 1988, 8), speeches.byu.edu

**의로운 결혼
평의회에서는 배우자
모두 존경, 친절, 완전한
참여를 통해 관계를
맺고 단합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



신권의 영광과 질서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라고 말씀했다. 패커 회장은 40년 넘게 십이사도로 봉사하면서, 신권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뿐만 아니라, 신권 열쇠와 같은, 신권에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며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 발췌문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패커 회장이 증거한 것과, 신권에 대한 그의 주요 가르침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신권의 열쇠

“19

76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지역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모임이 끝나자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1895~1985)은 토르발센이 조각한 그리스도와 십이사도 상이 있는 보르프루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

그 교회 앞에는 제단 뒤쪽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서 있는 낮익은 그리스도 상이 있습니다. 손에 난 못 자국과 옆구리의 상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스도 상의 양 옆을 따라 사도들의 상이 서 있는데, 베드로가 오른쪽 앞에 있고 그 옆으로 다른 사도들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당 뒤편 가까이에서 관리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앞쪽에서 김볼 회장님과 렉스 디 피네가 장로님, 코펜하겐 스테이크 회장인 조한 헬게 벤딘 회장님과 함께 베드로 상 앞에서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조각된 베드로의 손에 무거운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그 열쇠 꾸러미를 가리키면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때의 일이 제게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벤딘 회장을 향하시더니 평소와는 달리 결연하게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덴마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매일 사용합니다.’

저는 선지자의 그 선언, 그 간증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힘이 있었으며, 제 삶에서 실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예배당 뒤로 걸어갔습니다. 조각상들을 가리키면서 김볼 회장님은 친절한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돌아가신 사도들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에게는 살아 있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패커 장로는 사도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와 엘 톰 페리 장로도 사도이며, 저도 사도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사도들입니다.’



신권 권능이 가족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잡기 전까지 신권은 마땅히 내야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신약전서에서 칠십인에 관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여기, 살아 있는 칠십인 중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렉스 디 피네가 장로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입니다.’

그때까지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던 그 관리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때 일생일대의 경험을 했다고 느꼈습니다.”²

신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권은 그 직분보다 더욱 위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아론 신권이나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때, 안수로 그에게 신권이 부여됩니다. 먼저 신권을 받고 난 후에 신권의 한 직분에 성임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그 권세가 신권에서 나옵니다.

신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사도와 같은 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20:38 참조) 한 형제가 신권을 받을 때, 그는 신권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성임되거나 성별된 직분의 권리에 따라

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멜기세덱 신권 또는 대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론 신권 또는 소신권이 지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³

예비 신권

“소신권이라 불린다고 해서 아론 신권의 중요성이 조금이라도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이 멜기세덱 신권에 속한 필수 불가결한(교리와 성약 84:29 참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아론 신권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서 성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단순한 일상적인 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명예로움과 겸허해짐을 느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고대 사람들은 희생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실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게 됩니다.

과거의 희생 제물이나 오늘날의 성찬에서 그 중심은 모두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그분의 피흘리심과 우리 죄를 위한 속죄가 이러한 의식의 핵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의식을 집행하는 권세는 아론 신권에 속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스러운 임무이며, 이를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은 고대 주님의 종들과 형제로 결속됩니다. 우리가 아론 신권에 속한 의식에 참여할 때 것처럼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끼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

지금 집사와 교사와 제사로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앞으로 사도와 선지자로 이 자리에 앉아 교회를 감리하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론 신권을 예비 신권이라 부르는 것은

참으로 타당한 것입니다.”⁴

수련 장로들에게 주는 권고

“장로라는 직분은 위엄과 명예와 영적인 권세와 권능이 갖든 부름입니다. ‘수련(prospective)’이라는 말에는 희망과 기대와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이 메시지가 적용될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면,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것들이 마음 속으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아 가려졌던 것들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영감을 주는 언어를 다시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세, 전혀 떠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한 번도 떠나 있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되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에서 온전하고 충만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며,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⁵

신권에서의 부름

“부름은 권유나 요청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종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은 오래 전에 애리조나 주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계실 때 부름을 주는 것과 관련해 한 가지 경험을 하셨습니다. 당시 그 스테이크에는 청남 회장단에서 봉사할 사람이 한 명 필요했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은행 사무실을 나와서 잭이 일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잭, 스테이크 청남

회장으로 일해 보면 어떻겠나?’

‘스테이크 회장님, 설마 제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어리둥절해하는 잭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자네에게 하는 말일세. 자네는 젊고, 또한 젊은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가? 자네는 정말 훌륭한 회장이 될 걸세.’

그러나 김볼 회장님은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잭이 그 부름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은행으로 돌아가 방금 전의 실패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잭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사무실을 나와 잭의 사무실까지 걸어가서 정식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스테이크 회장단이 만나서 청남 회장단의 공식 자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네.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지.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그것에 대해 간구해 보았으며, 주님에게서 자네가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네. 주님의 종으로서 나는 자네에게 부름을 전해 주기 위해 왔네.’

‘흠, 스테이크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세.’”⁶

“모든 장로는 부름이 단순한 권유나 요청, 또는 임무 지명 이상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나는 장로 정원회 회장단 보좌로 봉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등과 같은 표현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보좌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스스로 어떤 직분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이보다는 우리를 감리하는 사람들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책과 관련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의하는 것이 감리하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때에 계시의 원리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 주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감리 역원들이 그 부름을 전해 주는

신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사도와 같은 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신권을 받을 때, 신권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신권 권능은 충실히 성약을 지키고 성약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에야 연습니다. 이 힘은 신권을 의롭게 행사하고 사용할 때 더욱 커집니다.

것입니다.”⁷

성임의 중요성

“신권은 단순히 성약을 맺거나 축복을 받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임 의식을 통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부터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어떤 말씀이나 기록으로부터 가정하거나 추론하든, 신권을 부여받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신권의 한 직분에 성임되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한 경전에는 ‘권세를 가진 어떤 자에 의해 성임되지 아니하였거나 또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음과 교회의 머리된 자들에 의해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져 있지 아니[한]’(교리와 성약 42:11) 사람이 부여한 신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

지금 말씀드리는 한 가지 단순하고 분명하며 확실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권은 전에도 그래 왔듯이, 항상 합당한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지녔다는 사실이 교회에 알려진 사람을 통해서만 부여됩니다. 그리고 신권을 받았을 경우에도, 성임받은 구체적인 직분에 속하는 권세 이상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성별받은 직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권세를 받지 않고 하는 성임이나 성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신권의 권세나 권능도 지니지 못합니다.”⁸

신권 권능

“우리는 신권 권세를 분배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신권 권세는 거의 모든 곳에 뿌리내렸습니다. 세계 곳곳에 장로 정원회와 대제사 정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신권 권세를 분배하는 일이 신권 권능을 나누는 일보다 빨리 진행된 듯합니다. 신권 권능이 가족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잡기 전까지 신권은 마땅히 내야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

신권 권세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협의하고 준비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교회 안에서 신권 권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신권 권세는 성임을 받음으로써 오지만 신권 권능은 충실히 성약을 지키고 성약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에야 연습니다. 이 힘은 신권을 의롭게 행사하고 사용할 때 더욱 커집니다.

아버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받은 부름의 신성한 본질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을 보호하도록 여러분이 받은 신권 권능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올 것입니다. 대적의 악행이 난무하는 곳에서 오직 그 권능만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⁹

“여러분이 받는 권능은 성스럽고 보이지 않는 은사인 신권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여러분의 권세는 성임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권능은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서 옵니다. ……

신권 권능은 집회에 참석하고 임무 지명을 받아들이고, 경전을 읽으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등의 일상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서 나옵니다.”¹⁰

주님의 참된 종

“우리는 다른 기독교 교회에서 신권 열쇠가 행사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조직과 권세가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비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현재의 십이사도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초기 십이사도들도 그러했듯이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십이사도평의회는 큰 권능을 지닌 집단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양한 일에서 종사했습니다.

과학자, 변호사, 교사로서 일했습니다.

넬슨 장로님은 심장 외과의로 그 분야의 선구자였습니다. ……

이 정원회의 몇 분은 해군, 해병대, 공군 조종사 등 군인 출신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교회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 교사, 선교사, 정원회 회장, 감독,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학생이자 교사입니다. 우리를 단합시키는 것은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구주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우리의 간증입니다.

거의 모든 십이사도가 구주께서 이곳에 계시 때 그랬던 것처럼,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살아 있는 십이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역 안에서 연합합니다. 부름이 왔을 때, 각자는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고 구주를 따랐습니다.”¹¹

“저와 함께 성임된 열네 분은 진실로 사도들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이를 선포하는 일에서 저는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 주셨다는 것과, 또한 개인적인 영의 증거를 얻고자 진정한 의도를 갖고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나타내 주시리라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참된 종들입니다. 그분들의 권고에 귀 기울이십시오.”¹²

한 사도의 간증

“저는 자질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의 봉사에는 부족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라는 질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자질이 제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이후에 성임된 모든 사람들처럼 저는 그 증거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그분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절정의 시기에 태어나서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시험 받으셨으며,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삼 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살과 뼈의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증거합니다. 저는 그분의 증인입니다.”¹³ ■

주

1. “신권을 부여하는 방법: 교리, 원리, 실천”,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6월 21일, 1쪽.
2. “십이사도”, 리야호나, 2008년 5월호, 85쪽.
3. “모든 장로들과 모든 자매들이 알아야 하는 것: 신권 행정의 기본적인 원리”, 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17쪽.
4. “아론 신권”, 성도의 빛, 1982년 4월호, 46~47쪽.
5. “수련 장로에게 드리는 말씀”,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10~12쪽.
6. “신권을 부여하는 방법”,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6월 21일, 1~2쪽.
7. “모든 장로들과 모든 자매들이 알아야 하는 것”, 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21쪽.
8. “성전과 신권”, 성도의 빛, 1993년 7월호, 20쪽.
9. “신권 권능”, 리야호나, 2010년 5월호, 7, 9쪽.
10. “아론 신권”, 성도의 빛, 1982년 4월호, 49, 50쪽.
11. “십이사도”, 리야호나, 2008년 5월호, 85~86쪽.
12. “십이사도”,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8쪽.
13. “십이사도”, 리야호나, 2008년 5월호, 87쪽.

아버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받은
부름의 신성한
본질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을 보호하도록
여러분이 받은
신권 권능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아론 신권 의무

여러분은 아론 신권에 성임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폴 벤덴버그
교회 잡지

여러분은 지난 주 일요일에 새롭게 성임된 초보 집사일 수도 있고, 매주 성찬식 준비를 돕는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이 어린 교사와 집사들이 새로 맡게 된 책임을 수행하도록 이끌고 봉사 활동을 현명하게 수행하도록 돕는, 경험 많은 제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권 소유자들은 주님께 한 가지 공통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교리와 성약 107:99)

그러면 이 의무에 대해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맨 먼저 경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아론 신권의 의무가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교리와 성약 20편 46~60절, 72~79절, 84편 111절을 공부해야 합니다.

또 다른 훌륭한 자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아론 신권 소유자*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신권 책임을 (1) “신권 의식 집행”, (2) “다른 사람에게 봉사”, (3)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모든 사람에게 권유”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집사, 교사, 제사 각 직분에서 “신권 의무” 편을 보면, 자신의 신권 의무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추가로 공부할 성구와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의 주요 의무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집사

집사는 정원회의 또래 회원들과 다른 교회 회원들을 위해 선한 모범을 보입니다. 집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당함을 유지합니다.

집사는 성찬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집사가 받은 성스러운 의무 중 하나입니다. 집사는 이 의무를 수행할 때 주님의 대표자가 됩니다. 집사는 교회 회원들에게 성찬이 상징하는 것들을 전해 줄 수 있도록 합당해야 합니다. 또 성찬의 성스러운 본질이 반영될 수 있게 행동하고 옷차림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흰색 와이셔츠를 입어야 합니다.

집사는 “교회를 돌아보도록 …… 임명”(교리와 성약 84:111)된 상주 성역자로서 봉사합니다. 그는 또한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아론 신권에 성임되면 특정한 권리, 책임, 의무가 뒤따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경전을 펼치십시오. 또 다른 훌륭한 자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아론 신권 소유자*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교리와 성약 20:59) 합니다. 이 책임에는 정원회 일원들과 다른 청남들과 우정을 증진하고, 회원들에게 교회 모임에 대해 알리며, 모임에서 말씀을 하고 복음을 나누며 간증을 전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집사는 “현세적인 일을 수행”(교리와 성약 107:68)하는 일에서 감독을 돕습니다. 이 책임에는 금식 헌금을 모으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과 집회소와 대지를 돌보며, 교회 모임에서 감독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가 되는 일이 포함됩니다.

집사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학생으로서 정원회 가르침에 참여합니다. 다른 의무에는 회원들의 현세적인 어려움을 돌보고, 선교사 봉사를 위해 준비하고, 또 그런 봉사를 베풀고 정원회 회장을 지지하고 도우며, 정원회 나이의 청남들을 활동화시키고, 복음을 배우는 일이 있습니다.

교사

교사는 집사가 지닌 모든 책임을 함께 지며,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성숙하고 품위 있게 되십시오

“우리는 훌륭한 어린 형제 여러분에게 ‘거듭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강력한 변화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거룩한 아들처럼 되고자 소망하십시오. 청소년 시절을 즐기되 다음과 같이 ‘어린이의 일은 버리십시오.’”

상스러운 말과 어리석은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다툼을 피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숙하고 품위 있는 어른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기와 신뢰, 겸손, 신앙, 선량함 등과 같은 자질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존경받고, 부모님에게서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신권 형제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청년들은 여러분을 흠모하고 여러분 때문에 더 발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신권으로 봉사할 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키스 비 맥멀런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아름 신권의 권능”,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48~49쪽.

교사는 성찬식을 준비합니다. 성찬식 모임을 위해 항상 성찬이 준비되어 있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일은 칭찬을 바라지 않고 봉사를 행하는 좋은 예입니다. 회원들은 종종 교사들이 성찬을 준비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봉사는 어쨌든 행해지며, 이것은 진정한 봉사이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사의 의무는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교리와 성약 20:53)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회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핍니다.”(교리와 성약 20:54) 이 책임에는 회원들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교사는 주변 사람들이 언제나 서로의 장점만 보도록 권해야 합니다.

교사는 “교회 회원이 자주 함께 모이도록 보살피며, 또한 모든 회원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살핍니다.”(교리와 성약 20:55) 이 책임에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사

제사는 집사와 교사가 지닌 모든 책임을 함께 지며,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습니다.

제사는 성찬대에서 집행합니다.



성찬을 집행하는 영광은 성찬 기도를 드리는 제사에게 주어집니다. 제사는 성찬 기도문을 숙지하고, 이 의식에 어울리는 복장을 갖추며, 의식을 집행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무엇보다 제사는 구주의 대표자로서 이 성스러운 의식을 수행하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제사의 또 다른 의무는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서 위임을 받아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0:46 참조) 합당한 권세로 침례를 주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의식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의식을 통해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해의 왕국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교리와 성약 20:46)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가 복음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부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물론 복음 원리가 무엇인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면 나중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려고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사는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며,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교리와 성약 20:47)합니다.

제사는 가정 복음 교사로서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고 자신이 맡은 가족을 방문함으로써 이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제사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고 다른 제사, 교사 집사를 성임할 권세가 있지만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서 위임을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교리와 성약 20:48 참조) 아론 신권을 부여하는 권능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청녀와 신권

신권 권세는 교회의 합당한 남성 회원들에게만 주어지지만, 신권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 즉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신권을 통해 똑같은 구원 의식을 받을 특권을 받습니다.

모든 청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딸로서 침례를 받을 때 성신의 은사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들은 “방언, 예언, 계시, 시현, 병 고침, 방언의 통역 등의 은사”(신앙개조 제7조)와 같은 영적인 은사를 구하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녀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성신께서 주시는 이 같은 은사들을 받고 발전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봉사하려 할 때 그들의 선한 모범은 주변 청남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남이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되도록 청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한 청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녀들이 할 수 있는 큰 일 두 가지는 정숙한 옷차림을 하고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녀들이 정숙한 옷차림을 하면, 제가 제 생각을 제어할 수 있고 대화할 때 상대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집사, 교사, 제사 여러분이 자신의 신권 의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려고 할 때, 신권 의식을 집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모든 사람에게 권유하면서 커다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은 아론 신권 소유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매우 신뢰하시며, 여러분이 완수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향하고 성신의 속삭임을 들으며, 계명을 지키고 자신이 맺은 성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2010], 5쪽) ■



신권 권세는 교회의 합당한 남성 회원들에게만 주어지지만, 신권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 즉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신권 의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신권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관한 정보, 동영상, 이야기를 보려면, DutytoGod.Ids.org를 방문하십시오.

선교 본부로 돌아가라!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고향 가나로 돌아온 다음날 아침, 나는 6시에 잠을 깬다. 오후나 되어서야 스테이크 회장을 만나 해임받을 예정이라서 나는 늦잠을 자기로 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케이프 코스트 선교 본부로 돌아가라.’라는 생각이 스쳤다. 가나 케이프 코스트 선교 본부를 알고 있었지만 왜 그날 아침에 거기에 돌아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머릿속에 스친 그 느낌 때문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다시 선교 본부로 향했다. 돌아가는 길에

선교부 회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걱정스러웠다. 분명히 왜 돌아왔는지 물어보실 것 같아 적절한 대답을 생각하려 했다.

도착해서도 나는 여전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해임을 요청하러 온 줄 아셨던 멜빈 비 사베이 선교부 회장은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몇 가지 질문을 하신 후 그분은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해임받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하고 대답했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그분은 내가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선교부 회장님은 내가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질문을 하셨다. “모비오 장로, 왜 오늘 아침에 여기로 왔습니까?”

질문을 하셨다. “모비오 장로, 왜 오늘 아침에 여기로 왔습니까?”

“사베이 회장님, 아직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여기로 와야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을 뿐입니다.”

다시 생각에 잠기신 후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비오 장로님, 제가 어제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장로님이 오셨군요.” 회장은 그분의 보조들이 새로운 선교사들과 함께 막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 중 한 명이 아이보리 출신인데, 여태껏 있었던 선교사들 중 프랑스어를 하는 선교사는 그가 처음이었던 것이다. 회장은 그 선교사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방법을 알 수 없었다. 회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젯밤 제 근심을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마침내 왜 내가 아침에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선교사들과 곧 만났고, 나는 선교 사업을 시작한 아이보리 출신 선교사를 위해 통역을 했다.

7개월 후, 나는 아이보리 코스트로 돌아가 여권을 갱신하고 선교부 회장과 함께 훌륭한 경험들을 나누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든 도구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업에서 우리를 어떻게 언제 써야 할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사업에 전념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나는 안다. 단지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

펠리치엔 도그보 모비오, 가나



두 번째 속삭임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날 밤 잠이 와서 졸린 와중에 15년 된 소형승합차의 바퀴 테와 타이어를 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차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다음날 바빠서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우리는 아이들 셋을 태우고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타이어 하나가 터져 버렸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 가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견인차를 불렀다. 집에서 바퀴 테와 타이어를 사서 끼우는 것보다 세 배나 많은 비용이 들었고 기다리느라 1시간 반이나 허비했다. 나는 영의 속삭임에 감사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더 잘 따라야겠다고 마음먹었다.

4년이 지나고 자녀가 둘이 더 늘었다. 우리는 이제 차로 13시간 거리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 뵙기로 했다. 그때는 14년 된 다른 승합차가 있었는데, 떠나기 1주일 전에 스페어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전 경험을 떠올리며 나는 그 느낌을 따랐다. 며칠 뒤, 전에 밧줄로 묶어 두었던 장비를 다시 단단히 묶을 화물 고정용 벨트를 사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개가 필요했지만 네 개를 구입했다. 나는 비상 용품 상자에 나머지 두 개를 넣어 두었다.

우리는 아버지 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녁 거리를 사려고 정차했다. 차 지붕에 있는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려던 찰나, 세 살배기 딸아이가 미닫이 문을 건드렸고 문은 땅에 쿵 하고 떨어졌다! 문이 딸을 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금요일 저녁인

데다가 우리는 집에서 805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문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 하지만 제대로 끼워지지 않아 고속도로 소음을 고스란히 들으면서 운전해야 했다. 나는 다시 차를 잠시 멈추고 문을 고정시키기 위해 여분의 고정용 벨트를 사용했다.

몇 시간 후 차는 다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굉음을 내며 덜컹거리는 문을 고정 벨트가 고정시키고 있었다. 차를 옆에 세우고 보니 한쪽 타이어의 벨트가 없어진 것이 보였다.

차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차를 옆에 세우고 보니 한쪽 타이어의 벨트가 없어진 것이 보였다.

나는 몇 주 전에 사 두었던 스페어 타이어로 즉시 교체했고 나는 다시 차를 몰았다.

나는 운전을 하는 동안 안전하도록 지켜 준 성신의 속삭임에 감사한다. 우리가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열왕기상 19:12; 또한 니파이전서 17:45; 교리와 성약 85:6)을 듣고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인도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 주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

매튜 디 플리트, 교회 잡지



저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독 일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실러 인터내셔널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준비할 때였다. 경영 윤리 수업에서 우리는 학기 말에 20분짜리 구술 발표를 해야 했다. 교수님은 후기 성도 관점에서 본 윤리에 대해 발표할 수 있겠냐고 내게 물으셨다.

나는 18세 때 침례를 받았고 1년 후 브라질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 그 후로 나는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계속

나누었다.

대학의 비종교적 환경에서 종교 문제를 토론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 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Mormon.org를 토대로 정보를 모아 발표를 준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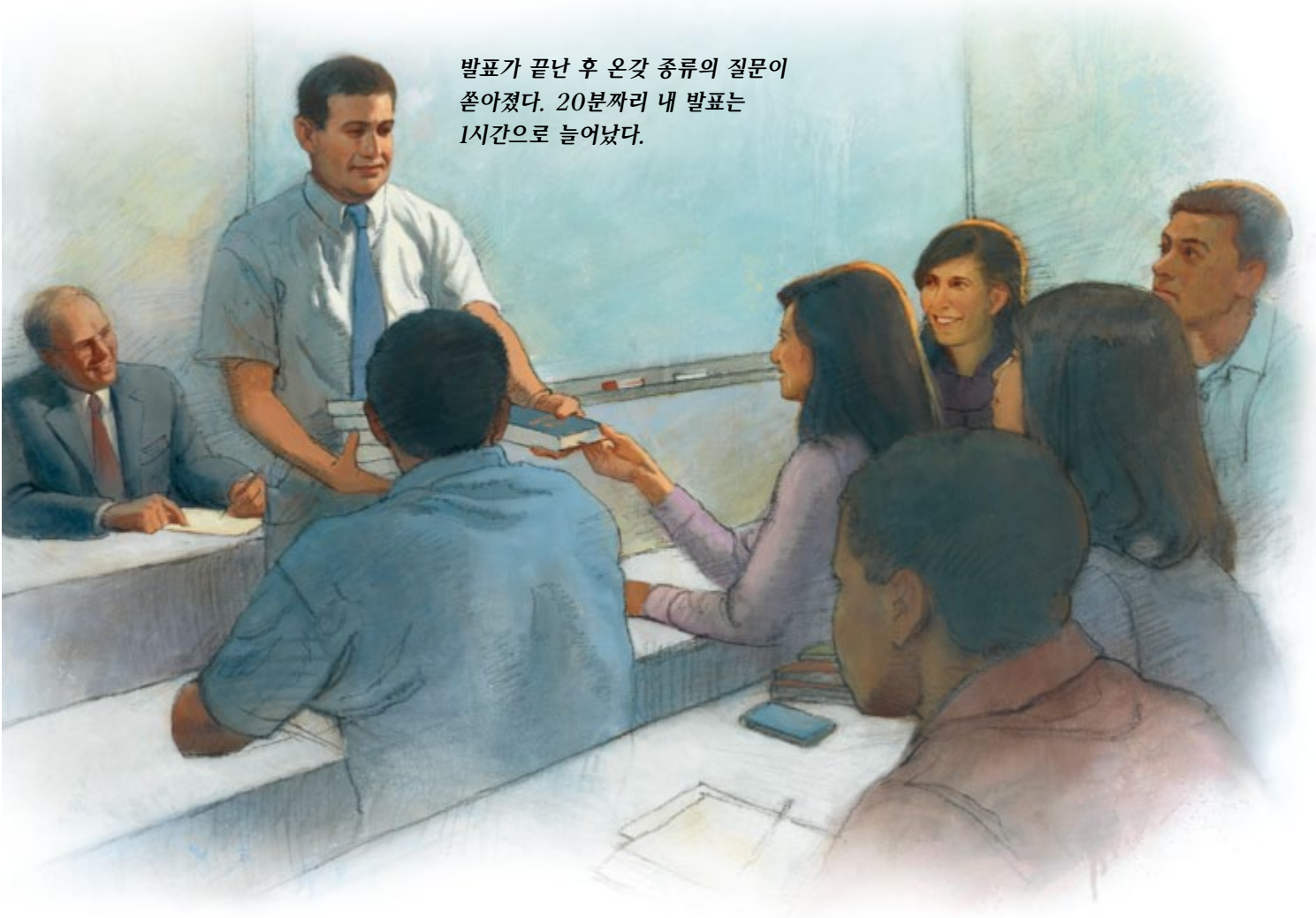
우리 학교는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입학한다. 그 윤리 수업은 다양한 국가 출신 학생 18명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특징인 다양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윤리 발표는 인도에서 온 두 학생이 먼저 시작했고 뒤를 이어 미얀마 출신 학생이 발표를 했다. 내 차례는 맨 마지막이었다. 나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과 신앙개조, 기타 복음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우리 교회에 대해 들어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

발표가 끝난 후 온갖 종류의 질문이 쏟아졌다. 20분짜리 내 발표는 1시간으로 늘어났다.



여기 와야 할 줄 어떻게 아셨어요?

주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국어로 된 물문경을 주었다. 발표가 끝난 후 온갖 종류의 질문이 쏟아졌다. 20분짜리 내 발표는 1시간으로 늘어났다.

다음날, 인도에서 온 한 친구가 내 발표에 감명 받았다고 하며 물문경을 조금 읽어 보았다고 했다. 그의 다른 인도인 친구도 물문경을 한 부 달라고 했다. 미얀마에서 온 친구는 교회에 대해 들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하면서, 자신도 가족과 순결의 법에 관한 원리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 친구는 물문경을 읽어 보기로 약속했다.

가나에서 온 친구들은 회복에 대해 말해 주어 고맙다고 했고, 아크라 성전을 보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라이베리아에서 온 친구는 내 메시지가 영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 했다.

주님의 영이 내 말을 확인시켜 주셔서 기쁘다. 우리가 한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수업 발표가 미래에 결실을 맺을 것임을 나는 안다. 수업을 같이 들은 사람들 중 일부라도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회복의 메시지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하기를 바란다.(교리와 성약 133:37 참조) ■

아벨 사베스, 독일

내 남편은 내가 33살 때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갑자기 나는 세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편부모가 되었다. 그때는 내 인생에서 힘든 시기였지만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교리와 성약 122:7)는 주님의 권고는 내게 전진해 나갈 용기를 주었다.

이후에 나는 재혼했고 새로운 와드로 이사하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다.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는데 최근에 남편을 여인 저활동 자매를 방문해야겠다는 분명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며 그 느낌을 무시했다. 부끄럽게도 그날 두 번이나 같은 느낌을 받고서야 나는 마침내 그 느낌을 실행했다.

그날 저녁, 날이 어두워져야 그 자매의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고 나는 기다렸다. 다시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반응이 없어서 돌아가려던 참에 현관 불이 켜졌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자매는 주저하면서 머리를 살짝 내밀었다. “여기 와야 할 줄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묻던 그녀의 한 마디를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남편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는 심정으로 종일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거의 생각나지 않지만 “자매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 잘 알아요.”라고 말한 것은 기억난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친구들과 주님이 그녀를 돌볼 때라고



돌아가려던 참에 현관 불이 켜졌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자매는 주저하면서 머리를 살짝 내밀었다.

확신시켰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슬픔에 가득 찬 그녀의 얼굴에 평화가 깃드는 것을 느꼈다.

대화를 마치며 온 마음을 담아 그녀를 꼭 안아 주었다. 그 자매를 방문하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다. 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가 어려움을 겪는 그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사랑스러운 자매를 도울 수 있도록 하셨음을 안다. ■

세리 에이치 길렛, 미국 유타 주

신앙으로 하나 되어 모이다



청년 성인 센터는 복음을 배우고, 사교 활동에 참여하며, 선교 사업과 활동화 노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가득한 훌륭한 장소이다.



스테파니 제이 번스

우 간다에서 온 바바라 마토부. 네팔 사람인 샘 베스넷. 노르웨이 본토인인 엘리자베스 올슨. 이들은 국가와 종족이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바바라와 샘과 엘리자베스는 모두 한 장소,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청년 성인 센터에 모여 하나의 진리,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어울린다.



위에서부터: 바바라 마토부, 샘 베스넷, 엘리자베스 올슨

이 세 명은 오슬로 청년 성인 센터에서 선교사 토론을 한 후에 교회로 들어왔다. 오슬로에 있는 청년 성인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며 친분도 쌓고, 종교 교육원 수업도 들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학교 공부도 하고, 심지어 저녁도 지어 먹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바바라는 아홉 살이던 1998년에 우간다에서 노르웨이로 이주해 왔다. 그로부터 10년 후, 오슬로에서 만난 두 선교사는 바바라에게 청년 성인 센터로 가서 회복된 복음에 대해 배워 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했다. 그러나 바바라는 그다지 탐탁지가 않았다.

바바라는 이렇게 말했다. “속으로 ‘뭐야 또

다른 청소년 센터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 곳을 솔하게 가 봤지만, 솔직히 마음 편히 있을 만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바바라는 이곳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잠시였지만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서 왜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따스함과 사랑을 느꼈거든요. 올바른 사람들과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곳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청년 성인 센터로 모여드는 사람들

청년 성인 센터 건립 계획은 2003년부터 추진되었다. 이러한 센터는 종교 교육반을 개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종교 교육원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청년 독신 성인들은 센터 활동 평의회에서 봉사하거나 전임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또래들을 가르치고 활동화하는 일을 돕거나, 센터 전체 운영을 맡은 부부 선교사와 가까이 지낼 수 있다. 청년 성인 센터 건립은 지역 칠십인의 감독 아래 그 지역의 신권 역원들이 결정한다.

맨 처음에 청년 성인 센터가 세워진 곳은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라이프치히까지 네 곳이었다. 그렇게 네 군데뿐이던 이 센터는 2011년까지 스웨덴, 키프로스 등 여러 지역에 세워져 141 곳으로 늘어났다. 현재는 미국과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 더 많은 센터가 건립되는 중이다.



제럴드와 낸시 소렌슨 부부는 노르웨이 트론히임에 있는 청년 성인 센터에서 봉사했다. 거기서 그들은 아프가니스탄, 중국, 가나, 이란, 이라크, 모잠비크,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청년 성인들을 만났다.

소렌슨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언어며 관습, 교육이나 종교적 배경이 아주 다양했지만, 모든 청년 성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 하는 똑같은 소망을 가졌다는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에게 있는 꿈과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청년 성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그들의 기도에 답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선교부 아먼드 조헨슨 회장은 청년 성인들이 센터로 모이도록 인도되는 것은 미래에 여러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다고 느낀다. “노르웨이에서 교회는 더욱더 다양한 언어며 관습,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 성인 센터는 젊은이들이 그러한 다양성에 어떻게 대처하고, 모든 문화와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는 공통 분모로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센터를 사회적 장벽과 편견을 낮추는 장소로, 훌륭한 통합의 장소로 봅니다.”

청년 독신 성인들은 센터 활동 평의회에서 봉사하거나, 전임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또래들을 가르치고 활동화하는 일을 돕고, 센터 전체 운영을 맡은 부부 선교사와 가까이 지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합되다

바바라 마토부는 청년 독신 성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자신을 데리고 센터에서 열린 활동 모임에 처음으로 갔던 날을 기억한다. 바바라는 어떨지 뻔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왔었어요.” 바바라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한 곳들은 멋진 동아리이거나 국제 동아리들로서 언제나 뭔가 특징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센터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아무도



‘난 인기 동아리에 속한 몸이라 너랑은 말할 수 없어’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에 정말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연기하는 게 아닐까? 보여 주기 위한 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 출신인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어요. 대개는 함께 어울릴 무리를 찾는 데 시간을 쓰지만,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저 바바라이며, 모든 사람에게 제 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으니까요.”



엘리자베스 올슨은 하늘 가족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볼 때마다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문화나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여 버리는 일이 참 쉽게 일어나요. 저는 눈을 떠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청년 성인 센터로 모여든 우리는 모두 문화적 배경이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 말이예요.”

처음에는 네 곳이던 센터가 이제는 141 곳으로 늘었으며, 세계 여러 곳에 더 많이 건립될 계획이다.

하나가 되지만 모두 똑같아지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단합이 개성을 희생한 대가로 오는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가 된다는 말에

경계심을 느낄지 모른다. “많은 사람이 종교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계명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특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따를 수는 있겠지만, 각기 다른 자질과 은사가 있으며, 그 때문에 각자가 다른 특성을 지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사명을 지녔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를 바라십니다.

샘 베스넷 또한 종교 규율이 자유를 제한한다고 믿는 친구들의 염려에 잘 대처해 왔다. “한 친구가 제게 ‘교회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규칙을 따라야 하잖아.’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샘은 기도로 교회 표준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계시를 구해 왔기 때문에 교회 표준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자녀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끄신다고 샘은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혀가 그분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모사이야서 27:31 참조)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다른 문화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성을 경험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킬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궁극적인 집합 장소에 도착하다

이러한 청년 성인들이 청년 성인 센터로 함께 모여 연게 되는 힘을 소중히 여길수록, 교회의 미래 지도자인 이들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중요한 집합 장소 중 한 곳은 바로 성전이라고 가르쳤다.¹

샘은 센터에 와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한 방편으로 삼았다. “아주 많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을 알아 가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적합한 사람이 되고, 성전에 들어가기에 더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가 지닌 다양성 그 자체도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종족이나 출신 국가, 또는 그 외의 차이점에 상관없이 고양하고 축복하는 일에 힘쓰라는 명령은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President Gordon B. Hinckley(1910-2008),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664.

합당하게 될 수 있죠.”

침례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바바라는 청년 성인 센터에서 열리는 가정의 밤 모임에 참석했다가 성전에 가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공과가 끝난 후 그녀는 질문하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게 성전이 어떤 의미가 될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성전에 대해 설명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성신을 느꼈어요.”라고 바바라는 회상했다. “멋진 교회나 해변 등 결혼식을 올릴 장소로 생각해 온 그 어떠한 곳도 성전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성전은 제게 단순히 어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간절히 바라는 곳이면서 언젠가 미래의 남편과 함께 갈 곳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또한 성전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성전에 갈 때마다 저는 마치 백만장자라도 된 것처럼 웃게 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성전으로 가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모든 축복과 은사를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압니다. 성전에 가고 또한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그분의 집에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음으로써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최대한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바바라는 해의 왕국이 궁극적인 집합 장소이길 바라며, 그곳에 등성등성 빈 자리가 없기를 또한 바란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큰 일 중 하나는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21:15~17 참조) 서로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으로 돌아오게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곳에 홀로 가기를 원하진 않을 테니까요.”라고 바바라는 말했다. ■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고”,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7~100쪽.

전 세계에서 모여들다

교 회의 청년 성인 센터는 신권 역원들, 대개 지역 칠십인의 지시 아래 조직된다. 2011년 현재 이러한 센터가 아프리카 3개국, 유럽 28개국, 미국 7개 주,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문의한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 공화국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중미

도미니카 공화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보베르데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몰도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코틀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웨일스

미국

애리조나 주
캘리포니아 주
조지아 주
인디애나 주
루이지애나 주
뉴멕시코 주
위스콘신 주

“복음대로 살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생각할 때면 때때로 너무 힘에 벅차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

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삶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세미나리, 학교, 일, 성전, 상호향상모임 등에 모두 가야 한다면 버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안배하여 복음 활동을 한다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세미나리, 기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 개인 발전 기록부 등과 같은 복음 활동은 청소년 시기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활동입니다. 물론 시간이 더 많이 들겠지만, 순종하기 위해 치르는 모든 희생에 대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어떻게 낼 수 있을지 배우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로 영감을 구하십시오. 일요일은 한 주 동안에 할 복음 활동과 그 외 다른 중요한 활동을 계획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부모님과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야 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교회 공과나 프로그램, 활동 등이 영감에 따라 마련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간증을 강화하고, 계명을 지키며, 선교 사업에 나가고, 성전에서 결혼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벅차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복음에 충실하려고 애쓰다면, 주님은 “길을 예비하[셔서]”(니파이전서 3:7)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면 삶에 영이 깃들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느낄 때 자신이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고 단순한 일들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단지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작고 단순한 일들을 하며 기꺼이 복음대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너무 벅차 보이는 것들이 더는 그렇게 힘겹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헌터, 17세, 미국 테네시 주

가족과 함께 복음에 따라 생활하세요



가족과 함께 복음대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족 기도, 가족 경전 읽기, 가정의 밤, 가족 역사 사업을 시작으로 가족과 함께 복음대로 생활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체리 오, 19세, 필리핀 다바오

최선을 다하세요



저는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한다면 잘 될 것입니다. 성신에 귀 기울이고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주님과 가까이 한다면,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여러분은 주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완벽해지려고 애썼으며, 정말 훌륭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며 우울해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삶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젠디 시, 16세, 미국 와이오밍 주

제시된 의견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매일 경전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성신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구하십시오. 올바른 선택을 할 때마다 영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는 소망이 더욱 생겨날 것입니다.

타이스 에스, 15세,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주님을 신뢰하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근심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이 되기 위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복음

또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있으면 복음대로 사는 것이 전혀 벅찬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샬롯 알, 14세, 미국 유타 주

현재 닦친 일에만 집중하세요



평생에 걸쳐 이뤄내야 할 일을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 해야 할 일만 생각하십시오.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님에 대해 가르치는 세미나리 공과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반원들(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일곱 명이 제 공과에 귀 기울이고, 배우며, 관심 갖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참여하도록 이끌기로 결정했고,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앞에 놓인 일에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베서니 에프, 15세, 미국 켄터키 주

차근차근 발전하세요

주님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니파이후서 28:30) 교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번에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 신앙, 소망과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며 매일 경전을 공부하여 일상 생활에 적용하고 늘 기도한다면 우리는 점차 발전하여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일리 시, 16세, 미국 유타 주

다음 질문

“형이 외설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형은 감독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도 형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형에 대한 저의 신뢰감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인 것들로 시작하기

“위대한 조각가나 미술가들은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바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완벽을 기대하면서 조각 칼이나 붓 또는 팔레트를 집어 들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울 때 많은 실수를 할 것을 이해하지만, 먼저 기본적인 사항들, 즉 기초적인 핵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즉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 즉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더 큰 행복과 화평을 가져다줄 결정에 대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한 가지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곳입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1917~2008), 십이사도 정원회, “세 가지 선택”,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80쪽.

여러분의 의견을 2012년 7월 15일까지 liahona.lds.org 또는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거나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7/12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개심은 한 걸음씩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40년쯤 전에 제가 선교 사업을 고려하고 있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매우 부적합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믿었지만 저의 영적인 지식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동안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나 충분히 알고 있느니라!” 이러한 확신은 저에게 선교사가 되겠다는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일생에 걸쳐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 여정의 시작이나 중간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개종은 한걸음씩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 원리와 의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계속해서 물몬경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 우리는 필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흔들리지 않고 인내해야 합니다. 때때로 주님은 “너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나 충분히 아느니라”라고, “계명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니파이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니파이전서 11:17)

우리는 각자 영적인 힘을 받을 때, 영감과 계시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혼 깊숙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해 영적인 힘을 비축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는 바를 명심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조성, 누가복음 1:28[영어 성경의 누가복음 14:27, 주석b])

몇 해 전, 제 친구는 비참한 사고로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그의 희망과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친구는 슬픔을 견딜 수 없었던 나머지 자신이 믿어 왔던 것에 대해 의혹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제게 편지를 보내 자기 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무언가를 말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신앙은 단지 느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는 신앙을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 친구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순종의 길을

신화 에니 렌리



선택했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영적인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제 친구가 그 축복을 받은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얼마 전 저는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는 그 친구의 아들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확신과 간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택한 아버지의 선택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크게 축복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역경, 고난, 의혹, 의심. 이러한 것들은 필멸의 삶을 차지하는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빛과 진리로 가득한 거대한 영적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신앙은 마음속에 동시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 5:36)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 속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영적 단계를 거듭해서 밟게 됩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는]”(교리와 성약 50:24)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의혹과 의심이 사라지거나 덜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고 순결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알던 것을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

200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평생 꿈꾸어 왔던 기회를
포기하겠는가?

엘리스 알렉산드리아 홈스



선교 사업을 위한 타임아웃

월 굴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데도 호주의 럭비스타 윌리엄 호포아테는 공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그가 속한 '블루스(Blues)'는 뉴사우스웨일스 주를 대표하는 팀으로, 퀸즐랜드 주에서 온 맞수 '마루스(Maroons)'를 맞아 그해 최고의 경기를 치르고 있다. 전반 20분이 흐른 지금, 월의 팀이 지고 있어 빨리 따라붙어야 할 상황이다. 오늘이 입단 후에 뛰는 첫 경기라 월은 실력 발휘를 해야 한다. 월은 팀내 가장 어린 선수이자, 'State of Origin 시리즈(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치는 블루스와 마루스 팀 간 라이벌전-웁긴이)' 역대 선수 중에서 두 번째로 어린 선수이다.

월은 동료에게 넘겨졌다가 자신에게로 날아오는 공을 주시한다. 공을 잡기 위해 뛰어올랐다. 잡았다! 월은 공을 손에 쥔 채 골라인을 향해 내달린다. 수비수들이 바짝 따라붙지만, 월은 경기장을 질풍같이 달린다. 이제 몇 미터만 더. 터치다운과 아웃라인의 경계선, 월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월은 자신감 있게 힘껏 골라인을 향해 몸을 날려 땅바닥에 공을 꽂았다.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다. 과연 득점에 성공했을까? 그때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들려온다.

럭비와 함께 성장한 소년

월이 네 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월을 지역 럭비팀에 등록시켰다. 너무 어린 나이인 듯 싶었지만 월은 '푸티(footy : 럭비를 지칭하는 호주의 속어- 웁긴이)'를 무척 좋아했다. 월이 열두 살이 되었을 때, 럭비는 월에게 단순한 운동경기 이상이 되었고 주니어 리그 팀 선수로 선발이 되었다. 16세 때는 주니어 프로 리그 팀에서 뛰게 되었다.

호주에서는 선수가 20세가 되면 성인 리그에서 프로 선수로

뛰기에 충분한 나이로 여겨진다. 월의 경우 겨우 18세 되었을 때부터 영입 제의가 빈번히 오갔다. 그는 최고의 유망주였다. 한 팀에서는 계약금으로 호주 달러로 150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그 연령대 선수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월의 마음속에는 가까운 미래에 실행할 다른 계획이 있었다. 월은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이미 결심한 터였다.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하고

선교 사업을 나갈지, 아니면 프로 럭비 선수로 계약할지를 말해야 하는 갈림길에서도 월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이미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결심했고, 세속적인 욕망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돈은? 계약은? 프로 럭비 선수가 되겠다던 평생의 소망은 어떻게 할거야? 사람들은 그의 프로팀 입단 계약이 성사되었더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묻고 싶을 것이다. 월은 “계약을 했다면 재정 면에서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앞으로 몇 년 간 제 장래도 보장되었을 거고요.”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월은 왜 그 제의를 거절했을까? 월은 이렇게 말했다. “선교 사업은 주님이 저와 같은 교회의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죠. 또한 그건 지난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께 받은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만약 그냥 머물렀더라면, 하루를 마칠 때 지금처럼 행복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선교 사업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럭비는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월의 발표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비회원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월은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은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2년간 럭비를 외면하고 떠나 있는 거라고 여겼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봉사하려는 거야. 이 일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그의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월을 좀 더 지지해 주었다.

봉사할 준비를 하며

월은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다고 그저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다.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전임 선교사들이 복음 토론을 할 때 옆에서 도왔다. “선교사들이 구도자의 질문에 답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마음속에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게 구도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선교사들이 가르칠 때



제가 도움을 줬던 몇몇 구도자들이 최근에 침례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한 경험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현재 월은 호주 브리즈번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완전히 럭비와 결별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비록 럭비를 할 수는 없지만, 럭비 선수로 뛰 때와 똑같은 열정으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선교 사업을 나오기 전에 월은 이렇게 말했다. “럭비를 할 때나 주님께 봉사할 때나 똑같은 열정과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운동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선교 사업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죠. 저는 복음을 들고자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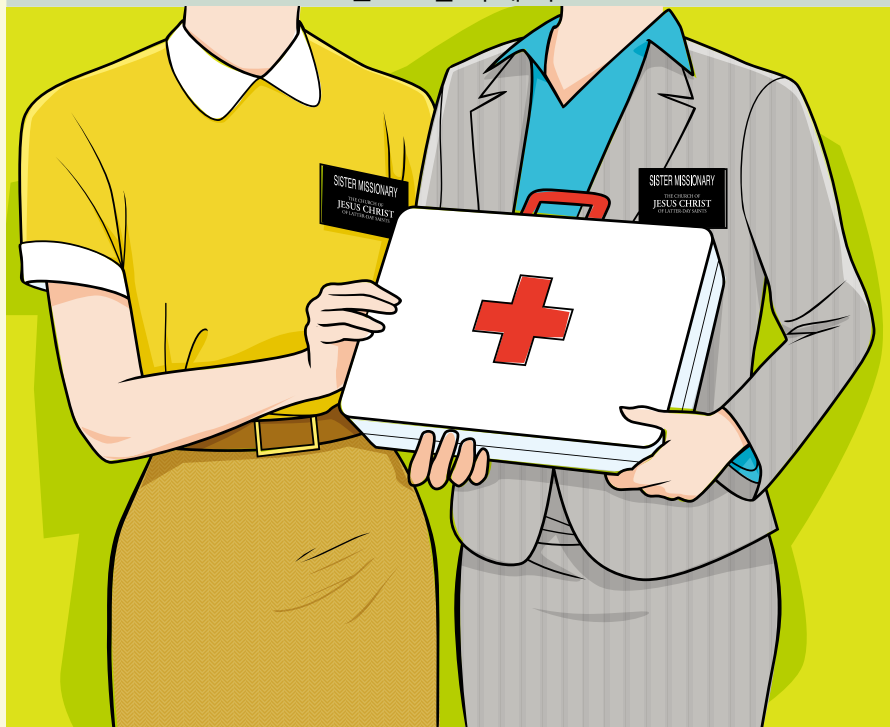
명예로운 귀환

스포츠 스타가 한 동안, 특히 2년 동안이나 경기장을 떠난다면 사람들은 복귀 후에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한다. 월은 선교사로 봉사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을 알지만, 더 훌륭한 것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 또한 안다. “이것이 큰 희생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기꺼이 하려고 해요. 운동선수로서 2년이란 공백은 꽤 길다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귀환한 후에 계속 럭비를 하고 싶어요.”

프로 럭비 선수로 뛰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지만 월은 선교 사업을 통해 오는 영원한 축복을 깨닫고 있다. “럭비 리그에서는 승리를 하거나 득점을 하면 늘 즐겁죠. 하지만 그 즐거움은 몇 주나 며칠 동안만 느낄 뿐이죠. 그러한 기쁨을 그 정도밖에 간직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친구나 구도자가 교회에 들어오고 복음이 그들 삶에서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을 볼 때 제 얼굴에 퍼지는 웃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



선교 임지에서



영적인 치유의 기적

엘리자베스 스티트

하루는 동반자와 함께 브라질 콜롬보에 사는 최근 개종자를 방문했는데, 집안에는 식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집을 좀 비좁지만 들어와 복음을 나누라고 했다. 막 입을 열려는 찰나 개종자의 형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고 우리가 온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우리 말에 어떻게든 반박하려 하는 듯 보였다.

그는 자기 교회의 모든 신도 이름과 그들이 겪은 병에 대해 기록해 둔 공책이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를 믿느냐고 물었다. “물론이죠.”라고 대답하자 그는 “나는 이 공책에 기록된 사람들 모두를 치유했소. 당신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겠소?”라고 말했다.

우리는 신권과 신앙,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주님의 뜻에 따라 이뤄지는지를 설명하려 했으나, 얼마 안 되어, 우리는 수세에 몰리고 공격을 당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교리와 성약 100:6) 정말 필요한 순간에 영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속삭였다. 나는 우리가 치유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로서 하는 일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치유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치유는 신앙, 회개, 침수로써의 침례, 성신의 은사, 끝까지 견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도 육체적인 치유를 믿지만 가장 중요한 치유는 영적인 치유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치유를 매일 본다.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몸이 치유된다 하더라도 그만큼은 중요할 수 없다.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아 이러한 말로 침착하게 대답하자, 방안을 감싸던 긴장감은 사라졌다. 그 형은 언쟁을 멈추었고, 우리는 복음을 나눌 수 있었다.

수개월 뒤, 선교 사업을 마친 나는 리아호나에 살던 존 테너의 선교 일지를 읽게 되었다. “개종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그것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낮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애폴 수 있고 결국 죽지만, 개종의 기적은 영원히 지속되며, 개종자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영원무궁토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종의 기적을 통해 온 세대가 치유를 받아 죽음에서 구속되는 것이다.”¹

근경에 처했던 두 명의 선교사는 자신들의 목적이 영혼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 준 성신의 속삭임에 참으로 감사한다. ■

주

1. 존 테너, 수잔 더블유 테너의 “새로운 개종자가 굳건히 남도록 도움”에서 인용, 리아호나, 2009년 2월호, 21쪽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겸손한 기도는 인도와 화평을 가져옵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8쪽



교리와 성약 135편 3절

순교하기 전까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온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지울 수 없는 명성과 이름

1844년 6월 27일에
일어난 사건[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의 순교]은

비극적이지만, 조셉 스미스의 순교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조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가
없으면 교회가 바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진리에 대한 그의 힘찬
간증과 그가 번역한 가르침, 또한 그가
선포한 구주의 메시지가 오늘날 조셉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포하는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69쪽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써"(교리와
성약 1:29) 그리고 우림과 둠침처럼 "미리
준비된 방편으로"(교리와 성약 20:8)
몰몬경을 번역했습니다.

3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
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
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이십 년이라
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몰몬경을
세상에 내놓았고, 두 대륙에 그것을
출판하는 방편이 되었으며, 거기에
실려 있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땅의 사방에 보냈으며, 이 교리와 성
약 책을 구성하는 여러 계시와 계명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
한 다른 많은 지혜로운 문서와 교훈
을 내놓았으며, 수천 명의 후기 성도
들을 집합시켜 위대한 "도시를 세워
지울 수 없는 명성과 이름을 남겼느
니라.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보
기에 위대하게 살다가 위대하게 죽
었으니, 옛적에 주의 기쁨 부음 받은
자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자기의 사
명과 일을 자신의 "피로 인봉하였고,
그의 형 하이럼도 그러하였느니라.
살아 있을 때 두 사람은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고 죽을 때도 그들은 헤어
져 있지 아니하였도다.

자기의 사명과 일을 자신의 피로 인봉[함]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찬송가, 18장) 가사를 읽고 조셉
스미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일지에
적어 보십시오.

선견자

선견자:

-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모세서 6:36)을 영적인
눈으로 볼 권세를 받았다.
- 계시자이자 선지자이다.
(모사이야서 8:13~16 참조)
-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안다.

scriptures.lds.org에 접속해서 "학습
도움말" 부분에서 "경전 안내서"에
들어가 "선견자"를 참조한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조셉 스미스가 종사한 사업은 이
세상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다가 올 삶에까지
관련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지상에서 살아온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우리 다음에
올 사람까지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의] 영역에 미치는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13쪽.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선정된 성구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학습을 시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내 선택은 나를 어디로 이끌까?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카리나는 여러 결정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는가?

카리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그 주가 특별히 더 더웠던 것은 아니다. 카리나는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성전 일반 공개로 많은 사람들이 왔건만, 그 누구도 카리나 혼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열일곱 살의 카리나는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 일반 공개에서 즐겁게 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기다리는 신문 기자 앞에서 혀가 얼어 붙어 버린 것만 같다.

카리나는 극복하려고 애써 온 지난 날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까 봐 두려웠다.

무리를 따르면 어디로 가게 되는가

교회에서 자라난 카리나는 성전 결혼을 꿈꿔 왔다. 하지만 대다수 청소년들처럼, 그녀도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카리나는 언니처럼 예쁘고 인기 있고 싶었다. 남보다 돋보이며 추앙받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튀어서 조롱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 아빠의 뒤를 이어 경찰학교에 진학하려는 꿈이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켰다. 2,000명 학생들 가운데 여학생은 70명밖에 없었다. 카리나는 관심받기를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했다.

또래들과 어울리고 싶은 생각에 카리나는 몇 가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세상의 유혹은 강했어요. 함께 어울리던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죠. 그들의 압력에 저는 굴복해 버렸어요. 별 신경 쓰지 않고 편한 집단에 속했다는 게 좋았어요.”라고 카리나는 말했다.

카리나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나 무리를 따라 가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된 그러한 선택들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갈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마태복음 7:13~14 참조)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날 카리나가 좋아하던 한 남학생이 카리나에게 교회의 믿음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런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않아서 창피함을 느낀 카리나는 마침내 자신이 걷던 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학개 1:5~7 참조) 카리나는 자신의 결정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성신의 동반, 영원한 가족을 이루려는 꿈에서 멀어졌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내리는 결정을 바꾸는 것이었다.¹ 하지만 잘못된 길로 이미 너무 많이 와 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웠다. 변화하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카리나는 매일 기도하고 경전 읽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매일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일지를 쓰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화가 나쁜 쪽으로 흘러갈 때에는 주제를 바꿨다.

가장 내리기 어려웠던 결정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를 사귀느니 차라리 한동안 친구를 아예 사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녀는 더 높은 표준을 따르는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다.

소망의 중요성

이 후 몇 개월간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사탄은 의심과 두려움을 주었다. 때때로 카리나는 구주를 따르려 노력을 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분의 모습은 결코 손에 닿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카리나는 부모님이나 강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면서 의심과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회개를 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르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실수 때문에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방향을 바꿀 기회를 주셨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옛 선택을 버리고 매일 구주를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제게 변화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분은 제가 힘든 시기에 어려움들을 이겨 내도록 도와 주셨어요.”

우리가 순종을 선택할 때 도움이 온다

카리나는 어깨를 펴고 기자를 향해 돌아섰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그녀를 위해 많은 것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기자가 질문을 마치자 카리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기자도 함께 웃으며 떠났다. 카리나는 뭐라고 말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느낌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을 따를 것을 선택한 사람들 곁에 항상 계신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완전에 이르는 길”, 리야호나, 2002년 7월호, 111~114쪽 참조.



회개를 선택하십시오

“그릇되게 행동하여 악마에게 포로처럼 사로잡힌다 해도 여러분에게는 안쪽에서 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회개는 어떤 상처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리야호나, 2011년 11월호, 18쪽

쉐넌 클로워드

우리 청녀 지도자들은
야영을 준비하기 위해
1박 2일로 여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여행 야영지를
미국 애리조나 주
남쪽 지역에 있는
샌페드로

더 나은 모범

강둑으로 정했다.

침낭을 편 후, 나는 청녀들과 주위를
좀 둘러보았고,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그 전에 먼저 안전과 응급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교육을 받기 위해 강
근처에 있는 그늘에 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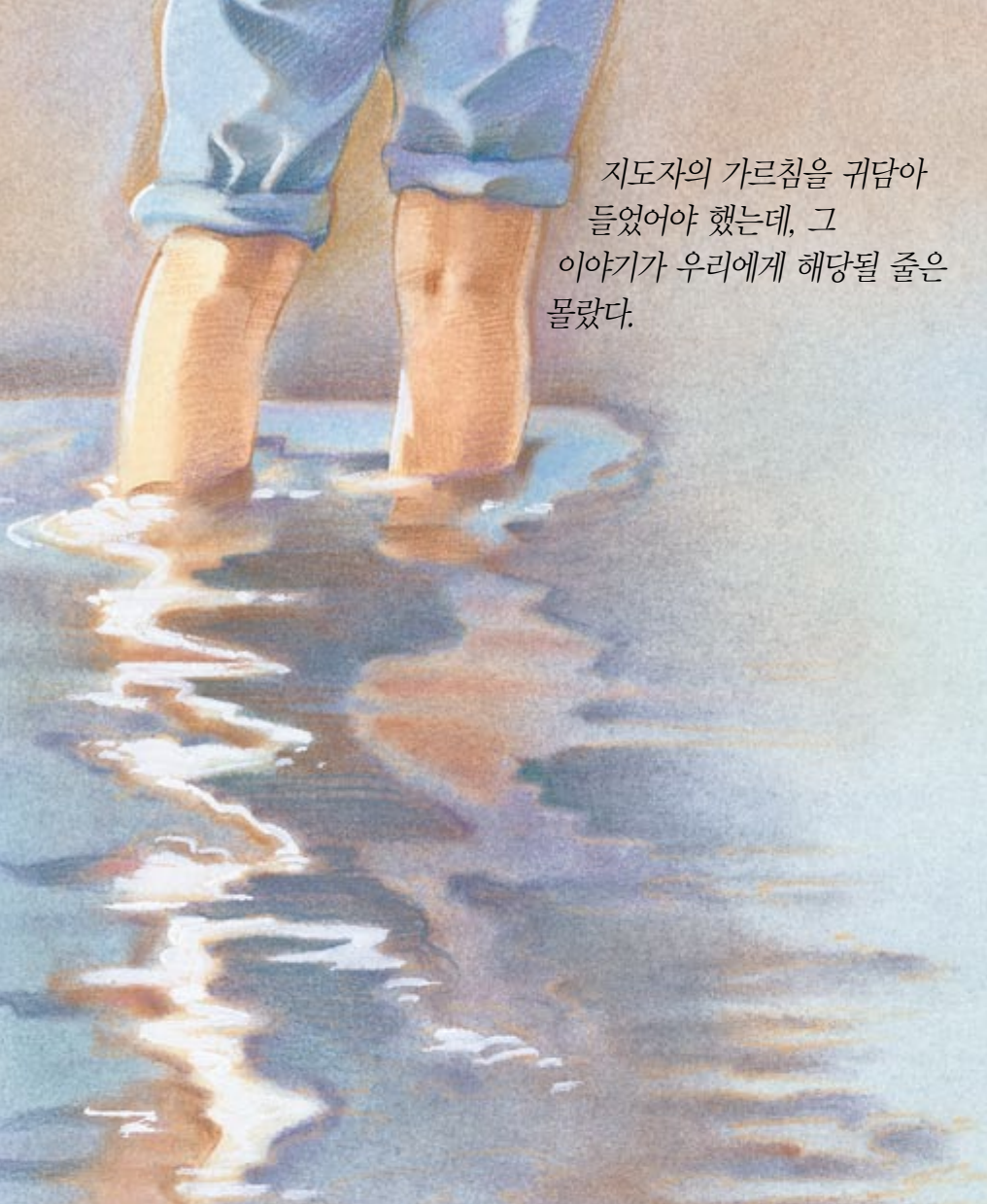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을 보자
공과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브라운
자매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산들바람은
미루나무들과 즐겁게 어울려 놀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 공과를
들었기 때문에 왜 지금 또 들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출혈을

멈추려면 상처 부위를 눌러야 하는
것쯤은 다 아는데 자매님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셨다.

해산하기 전에 지도자들은 맨발로
강에 들어가지 말라고 재차 말씀하셨다.
“강 바닥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 모두
발을 보호해야 해.”

강 기슭에 이르렀을 때 일부 청녀들은
이미 물 속에서 물을 튀기며 놀고
있었다. 강은 진흙이 일어 흙탕물이었다.
강은 깊이가 기껏해야 3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나는 신발을 벗기로 했다. 신발을 한
켠레만 가져갔기 때문에 물에 젖어 종일
촉촉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다. 제일 친한 친구인 마사와



지도자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당될 줄은
몰랐다.

“상처를 꼭 놀러!” 하고 소리치시며
달려가셨다.

10분 전에 들었던 공과는 효과가
있었다. 곁에 서서 피가 흐르는 것을
지켜보던 청년들이 엘리자베스의 발을
들어 올리고 상처를 압박했다.

엘리자베스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처가 너무 깊어 발이 거의 잘릴 뻔
했다는 말을 들었다. 상처를 수도 없이
꺾매야 했고 낮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시 봤을 때에는 목발을 짚고
있었다.

친구가 그렇게 심하게 다치게
할 장본인이 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나는 내가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제 나는 친구들에게 더 나은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지도자들의
말씀을 더 가까이 경청하려 한다.
그분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아신다. ■

엘리자베스가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다시 일러 주었다. 그러나 나는 아랑곳
없이 신발을 벗고는 이유를 설명했다.
마사도 신발을 벗었지만 엘리자베스는
머뭇거렸다. 나는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원한다면 신발을 신고 오든지.”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앉아서 신발을 벗고는
강물로 뛰어 들었다. 다섯 걸음 정도
내디뎠을까. 엘리자베스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나지막하게 “아, 안 돼.”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물 밖으로 발을
들어올렸다. 배인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게 보였다. 엘리자베스가 깨진 유리병을
밟았던 것이다!

피를 보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응급치료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엘리자베스가
물 밖으로 나오도록 다른 두 청년가
도와주었다.

나는 브라운 자매님을 찾아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렸다. 자매님은
내가 장난치는 것이라 생각하셨다.
계속 피를 흘리며 길가에 앉아 있는
엘리자베스를 보고서야 자매님은



귀 기울이기

“도덕 규범을 새로 지어
내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인생의 비극적인 교훈을
직접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도자와 부모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자기 내면에 있는 가장 훌륭한 본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감미롭고 부드러우며 부인할 수
없는 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Elder Jeffrey R. Holland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We Want the Best
for You,” *New Era*, Jan. 2010, 5.

진정한 친구



사라 차우
실화에 근거

“네 친구들은 네 곁에
있나니”(교리와 성약 121:9)

그 파란색 쪽지의 모서리에는
지그재그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레미가 그
쪽지를 건네줬지만 멜라니는 그 쪽지를
레이첼이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멜라니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읽기 시간이 끝나서 반 친구들은 책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멜라니는 쪽지가 “내 단짝에게”라는
말로 시작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멜라니는 상긋 웃었습니다. 둘은 2학년
때부터 단짝이었습니다. 멜라니는 그
쪽지를 펴면서 ‘우리 둘은 정말 다르지만
여전히 제일 친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단짝에게,
너 담배 피니?
-레이첼

멜라니는 ‘항상 같이 어울렸는데도
애는 내가 담배 안 핀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어 놀랐습니다.
멜라니는 쪽지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역겨울 것 같은데. 근데 왜
물어보는데?
-멜라니

멜라니는 쪽지를 다시 제레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곧 제레미는 답장을
받아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댁에서 담배 한 갑을 몰래 가지고
왔어. 학교 끝나고 나랑 한번 피워 보지
않을래?

-레이첼

멜라니는 쪽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레이첼! 왜 담배를 피우려는 거야? 그건
너한테 좋지 않아! 넌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걸 좋아하지. 그건 나도 알지만
네가 다치는 건 싫어.

-멜라니



레이첼이 답장을 보내 왔습니다.
담배 몇 대를 피운다고 내게 큰 일이
나는 건 아니야. 한 갑도 제대로 못 피울
텐데 뭐.
-레이첼

멜라니는 울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친구야. 나는 널 사랑해. 담배 피우지
마.
-멜라니

멜라니는 쪽지를 읽는 레이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레이첼이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오랫동안
쪽지를 붙들고 있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멜라니가 받은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나도 사랑해. 담배 안 피울게.

멜라니는 자신이 좋은 모범을
보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 감사했습니다.
레이첼이 옳은 선택을 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냉장고에 맥주가 있었어요.
친구가 조금 마시고는 저에게도 좀
건네주었어요. 제가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하자, 친구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술이 몸에 해롭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말했어요. 저는
맥주를 마시지 않아서 좋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지혜의 말씀이 있어서
좋아요.

사라 시, 8세, 미국 네바다 주



“나는 해로운
것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복음 표준

우리들 이야기



네페이 에이치, 11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될 거예요

아 아버지께서 신권을 가지고 계신 것과 저를 침례 주신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된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선지자의 말씀이 참됨을 압니다.

아리아나 시, 9세, 페루



타이나 시, 12세, 브라질



비미엔 엠, 7세, 캄보디아



저는 성전에 가는 것이 좋아요,
나단 피, 7세, 이탈리아



브라이언 시, 7세, 코스타리카



아주 특별한 곳

저는 아홉 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처음 갔을 때 아버지와 함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려고 우리는 함께 성전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아름다운 대기실에도 가 보았는데, 그곳은 평화롭고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지금 사도들의 삶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저는 성전이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파엘 알, 9세, 스위스



내 영원한 가족, 카밀라 티, 7세, 과테말라



에스테반 에이, 11세, 콜롬비아



로스티크 지, 4세, 우크라이나



페르 지 맘 장로
칠십인 정원희

부지런함에서 오는 축복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교리와 성약 123:17)



스웨덴에서 살던 어린 시절, 제 아버지는 선교부 회장단에서 봉사하며 몇 분의 회장님을 보좌하셨습니다. 이 부름 때문에 아버지는 주말이면 꽤 자주 출타를 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남매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또한 어렸을 때 노동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여름이면 자전거를 타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딸기 농장에 갔습니다. 매일 여러 시간 동안 딸기를 따서 돈을 벌었습니다.

농장에는 저희 가족의 여름 별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전기나 수도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는 손수 나무를 베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저에게 아침에 소들을 몰고 외양간으로 가서 소젖을 짜고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을 맡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추수를 하고 건초더미를 쌓아 올렸으며, 말을 이용해 건초 가마니를 외양간까지 끌고 갔습니다.

노동을 했던 경험과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범은 제 첫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여섯 살 때에는 스웨덴,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에 교회 건물을 짓는 데 기여하도록

벽돌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벽돌공으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영적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직한 노동이야말로 옳은 일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임무를 받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다고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임무를 받아들이고 시간과 재능을 쏟아 주님의 왕국을 건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경험하고 목격할 것입니다. ■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복음 원리에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해요

라 몬의 호주머니 속에서는 마을 시장에서 달걀을 팔아 번 동전이 짙랑거렸습니다.

라몬은 십일조로 낼 동전을 모아 둔, 집에 있는 단지를 떠올렸습니다. 라몬은 일요일에 감독님께 그 동전을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라몬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십일조를 내는 게 기뻐했습니다.

시장 가판대에는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라몬은 가장 좋아하는 미식축구 팀 로고가 새겨진 알록달록한 티셔츠를 보았습니다. 그 티셔츠를 입고 경기장을 달리며 골을 넣어 팀을 승리로 이끄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라몬은 가격표를 보았습니다. 십일조를 내려고 모아 둔 돈과 달걀 판 돈을 모두 합치면 그 티셔츠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라몬은 그 따뜻한 느낌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몬은 티셔츠가 무척 갖고 싶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일조로 낼 돈을 쓰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몬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십일조를 맨 먼저 내기로 했습니다. 다시 달걀을 팔아 돈을 더 많이 모으면, 티셔츠도 사고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십일조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바로 여러분

십 일조를 낼 때에는 십일조 명세서를 씁니다. 우리는 십일조와 이 명세서를 봉투에 넣어서 감독단이나 지부 회장단 중 한 분에게 드립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십일조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배워 봅시다.

십일조 금액 외에 십일조 명세서에 또 무엇을 써 넣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 기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부모님께 여쭙어 보세요.

CTR 활동:
십일조의 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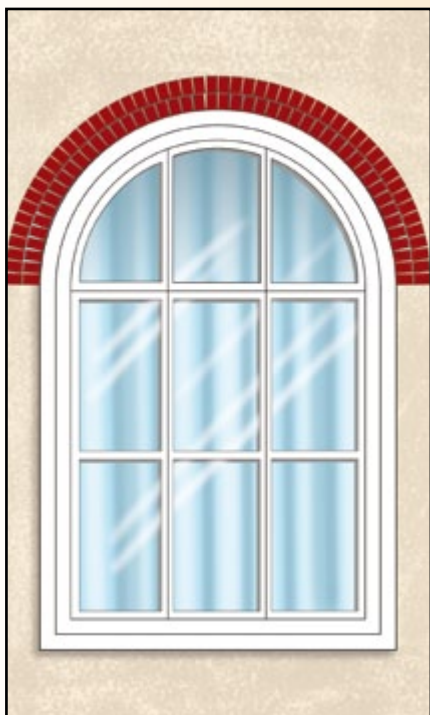
말 라기는 우리가 십일조를 내면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 가르친,
구약전서의 선지자입니다.(말라기
3:10 참조) 십일조의 법을 따랐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을 상징하는 콩이나
단추, 또는 작은 조약돌을 창문에
붙여 보세요.



더 큰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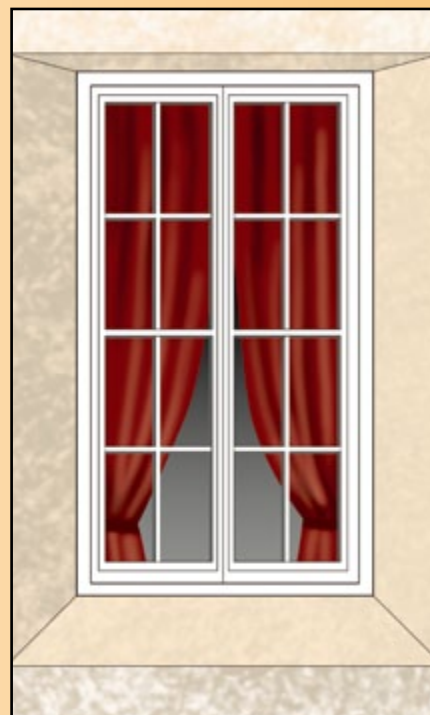
더 강한 간증



주님에 대한 신뢰



복음 안에서 느끼는 행복



충분한 음식



운동장에서 칼리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물건 찾기 놀이입니다.



칼리의 운동장

채드 이 패러스
교회 잡지

미 국 아이다호 주 렉스버그에 사는 칼리 더블유는 남들을 돕느라 바쁩니다. 집에서는 고양이와 개, 닭을 돌봅니다.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손꼽히는 칼리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학과 읽기

공부를 할 때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노래를 부르며 다른 어린이들에게 영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들을 정말 잘 도와주는 칼리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도 칼리를 돕기로 했습니다.

칼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분척추(태아 발달기에 척추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갈라져서 생기는 선천성 척추 결함-웁긴이)가 있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칼리는 몸 전체의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땅을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에는 무척 힘이 듭니다. 학교 운동장에 있는 시설은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칼리는 운동장에서 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운동장에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칼리 말고도 몇 명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놀지 못하니까 쉬는 시간에는 가끔 우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칼리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칼리는 합창단원이고, 피아노도 배웁니다.

운동장에 고무 바닥이 깔려서 칼리는 좀 더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칼리와 할리 조(오른쪽)는 인형놀이를 하거나 산책을 하고, 또 색깔놀이도 하면서 함께 놀기를 좋아합니다.

답답하기도 해요.”라고 칼리는 말합니다.

칼리의 친구인 할리 조와 할리 조의 어머니는 칼리와 모든 학생이 함께 놀 수 있는 운동장을 짓기 위해 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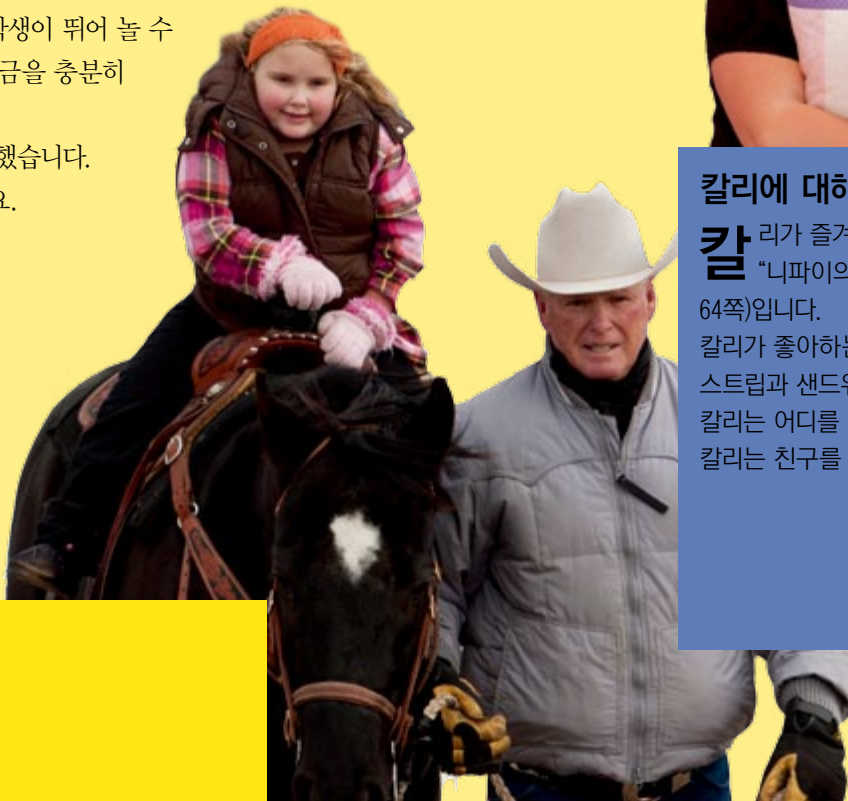
할리 조와 할리의 어머니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새 운동장을 짓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마침내 모든 학생이 뛰어 놀 수 있는 새 운동장 건축 기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할리 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슬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칼리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칼리는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생겨 행복합니다. “진 경사로로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걸 좋아해요. 친구들과 정말 재미있게 놀아요.” ■



칼리에 대해 더 알아보시다

칼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니파이의 용기”(어린이 노래책, 64쪽)입니다. 칼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 스트립과 샌드위치입니다. 칼리는 어디를 가든 노래를 부릅니다. 칼리는 친구를 잘 사귀입니다.

승마는 균형 잡는 법을 익히는 데 좋습니다.

어린이 야구단에서 배운 교훈

“나에겐 가족이 있네. 소중한 내 가족.
난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라.”
(어린이 노래책, 98쪽)



린지 스티븐스
실화에 근거

“제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죠?” 린지는 푸념했습니다.

“동생을 응원해야지.”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겨워요. 어차피 개를 거의 보지도 못하는걸요.”라고 린지는 대답했습니다.

린지의 남동생인 마이클은 어린이 야구단에 가입했고, 엄마는 모든 연습과 경기에 가실 때 린지도 데려가셨습니다. 린지는 그 시간이 내내 지루했습니다. 마이클이 야구 방망이를 힘겹게 휘두르는 동안 린지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여동생에게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린지는 한숨을 내쉬며 동생이 외야에서 팀원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을 잡으려고 달려갔지만 놓쳐 버리고, 또 겨우 주운 공을 엉뚱한 사람한테 던지는 동생이 보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마이클!” 엄마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엄마! 마이클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린지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야, 린지. 마이클이 잘 못할 때 응원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마이클마저 자기가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만두려고 할지도 모르잖니. 나는 마이클이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면 해. 네가 항상 그림을 열심히 그리길 바라듯이 말이야.”

“미술 수업은 응원할 사람이 따라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이클이 저랑 같이 와서 제가 색감을 제대로 표현했을 때 ‘와 대단해!’ 하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린지가 대꾸했습니다.

이에 엄마는 “그래, 하지만 마이클은 네가 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 줄 때마다 늘 칭찬하지 않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린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술 수업까지 차로 데려다 주시는 엄마와 가끔 친구와 놀고 싶을 때에도 차에서 기다려야 했을 마이클을 떠올렸습니다. 린지는 외야에 있는

마이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상대 팀 타자가 친 공이 마이클을 향해 정면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마이클!” 린지가 응원했습니다. “잡을 수 있어!”

마이클은 공을 향해 뛰어갔고 팔을 쭉 뻗어 글러브로 공을 잡았습니다!

린지와 엄마는 별떡 일어서서 응원을 했습니다. “잘했어, 마이클! 너만한 남동생은 어디에도 없어!” 린지가 소리쳤습니다.

“누나한테 남동생이 나밖에 없잖아!” 마이클이 함박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린지는 다시 앉았고 웃음이 귀까지 걸렸습니다.

린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중해서 마이클을 응원해야 할까 봐. 공을 잡는 마이클을 본 것이 하루 중에서 제일 신나는 일이었어. 내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이클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리 모두 마이클을 응원해야 해요.” 린지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웃으시며 “마음이 바뀌어서 기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응원해요.” 린지가 말했습니다.

“가라, 마이클! 할 수 있어!” 엄마와 린지는 함께 응원했습니다. ■



“힘 제자매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복돋아 주고, 그들이 혹시 어려움을 겪는다면 도움을 주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15쪽.

다나의 축복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실화에 근거

1. 다나는 태어날 때부터 입술과 입안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수술도 벌써 네 번이나 받았습니다. 오늘 다나와 부모님은 또 다른 수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의사 선생님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엉덩이 뼈에서
일부를 잘라 내어 입을
수술하는 데 쓸 거란다.

2. 다나는 수술 후에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3. 수술 전날 밤, 아빠와 삼촌이 신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이럼 삼촌이 다나의 머리 위에 성별된 기름을 바르셨고, 아빠가 축복을 하셨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초콜릿 우유를 마실 수
있어요?

입이 낫고 나면
초콜릿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지.



몸이 건강하여 수술 후에 빨리 회복되도록 축복하노라.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노라.

4. 다음날 아침 엄마 아빠는 다나를 병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5. 다나를 수술실로 데려가기 위해 간호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다나는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다나.

걱정 마세요, 엄마. 무섭지 않아요.
아빠가 축복을 주셨거든요.



6. 다나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다나는 빨리 낫도록 아파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이 기뻐했습니다.





축복은 어떻게 받나요?

힐러리 엠 헨드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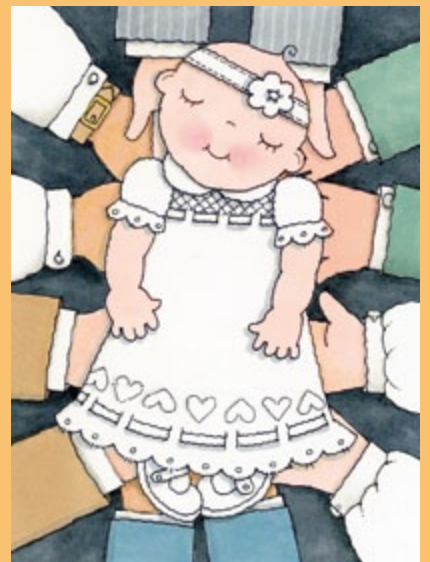
신 권 축복을 받을 때에는 기도할 때처럼 경건한 태도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야 합니다. 축복을 받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 주는 그림에 동그라미를 그려 보세요.



언제 축복을 받나요?

힐러리 엠 헨드릭스

신 권 축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끼였을 때, 이름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아플 때나 다쳤을 때, 슬픈 때나 무서울 때 축복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매년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신권 축복을 받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세요. 어린이들은 무엇 때문에 신권 축복을 받았을까요?





복음 원리에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해요.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니파이전서 3:7)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장애 관련 교회 웹사이트를 새로운 아홉 가지 언어로도 볼 수 있다

멜리사 메릴
교회 소식 및 행사

사이트 lds.org/disability가 2007년에 영어로 개설된 이후에 지침서, 공과 책, 다른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한군데로 모음으로써 더 손쉽게 장애에 관련된 도움과 아이디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한 해 동안 열 개 범주로 구성된 장애 관련 정보들과 다양한 자료들을 한국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새로운 9개 언어로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바린 형제의 가족에게 이 사이트는 유용할 것이다. 바린 레이먼드와 이사벨 부부는 아들 제롬 외에도 다운증후군인 둘째 아들 제레미가 있다. 당시에는 다운증후군에 관해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레미가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지만, 바린 형제의 가족은 긍정적으로 제레미의 장애에 대처해왔다. 바린 형제는 많은 사람이 제레미를 큰 애정으로 감싸주고 특히 교회 회원들이 제레미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과 이해심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웹사이트가 그러한 태도들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맞닥뜨리게 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도 똑같이 중요한데,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서라기보다는 격려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사이트는 장애가 있는 가족을 둔 가정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간증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Disability Services(장애 담당 부서)에서 자문을 담당하는 칠십인 키스 알 에드워즈 장로는 이에 공감한다.

“장애가 있는 회원들, 그들의 가족, 돌보는 사람들 모두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한 목적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한 마음 한 뜻’(모세서 1:39; 7:18 참조)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에드워즈 장로는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이해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교회 장애 관련 사이트는 2012년에 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 등 10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일한다는 점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무도 외롭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포르투갈에 사는 파티마 알베스는 이분척추(태아 발달기에 척추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갈라져서 생기는 선천성 척추 결합-웁긴이)를 앓고 있는데 이 웹사이트에서 도움을 얻었고 이제 혼자서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제겐 중요해요. 교회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려는 관심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사이트는 모든 회원에게 다가가려는 교회의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에드워즈 장로는 말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 중 일부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그 어떤 자녀도 간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는 개인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장애가 있는 회원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웹사이트가 교회 회원들의 관계를 대신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것은 아니다.

“지난 수년간 교회는 특별한 필요 사항을 다루는 일에서 다양한 성공을 거두어 왔습니다. 그 성공의 밑바탕에는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개개인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을 돕는 열쇠는 그들을 사랑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기 위해 영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라고 에드워즈 장로는 말씀했다.

“우리는 모두 이웃을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책임이 있습니다.(마태복음 19:19 참조)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이해하고 그 일을 도우려는 소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

이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다.

장애 목록: 10개 범주로 구성되어 장애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각 장애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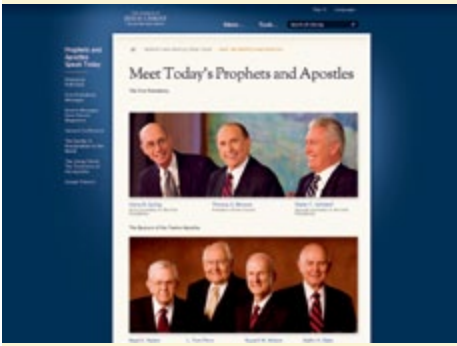
가족: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가족을 강화할 수 있는 제안이 실려 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이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범주는 방법, 교리와 정책, 자료, 통계이다.

일반 정보: 이 사이트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며, 때때로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대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준다.

지도자 및 교사: 지도자와 교사들이 장애가 있는 회원과 함께 일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알려 준다.

성구 및 인용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안과 희망을 주는 성구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볼 수 있다.



Prophets.LDS.org에서 살아 있는 사도들의 새로운 일대기를 보게 되다

십이사도들의 새로운 일대기를 prophets.lds.org 사이트 “Meet today’s prophets and apostles(현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만남)”란에서 2월부터 볼 수 있게 되었다. 제일회장단의 일대기는 2011년 10월부터 이용 가능했다. 올 한 해 동안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일대기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될 것이다. 정보 대부분은 과월호 *리아호나*에서 다양한 언어로 출판되었다.

“우리는 그분들의 유년기, 학창시절, 가족생활, 사도로 부름 받기 전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어떻게 평범한 남자와 여자를 주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시고 강화하시는데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칠십인 폴 비 파이퍼 장로는 말씀했다. 일대기는 각 지도자의 생애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담게 될 것이지만 내용 대부분은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부름에 봉사하도록 준비시키셨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

연차 대회 노트를 통해 연차 대회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다

리아호나와 *Ensign*의 새로운 정규 지면인—연차 대회 노트는 독자들이 최근 연차 대회에서 주어진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2012년 1월부터 선보인 이 지면은 5월, 6월, 11월, 12월호를 제외한 나머지 달에 매달 등장할 것이다. 5월과 11월호에는 연차 대회 말씀이 실린다.

연차 대회 노트에는 짧은 요약문과 다채로운 삽화, 학습, 관련된 경전 구절과 더불어 간단한 활동도 실릴

것이다. 또한, 회원들의 이야기와 연차 대회 말씀에서 응답을 얻은 복음에 관련된 질문들도 볼 수 있다.

독자들은 연차 대회 노트를 통해 최근 연차 대회 말씀을 되새길 수 있게 될 것이며, 다가올 연차 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리아호나*와 *Ensign*에 실리는 ‘연차 대회 노트’ 지면은 1쪽에서 4쪽 분량이며 ‘작고 단순한 일’ 지면을 대신할 것이다. ■

리아호나와 Ensign에 실리는 ‘연차 대회 노트’는 연차 대회가 끝난 후 이어지는 몇 달 동안 대회 하이라이트를 독자들이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새로이 마련된 지면이다.



중앙아메리카 성도들과 함께 한 넬슨 장로

호세 페냐
리아호나 기자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1월에 제일회장단의 임무 지명에 따라 중앙아메리카를 순방하면서 신권 지도자들과 지역 회원들을 훈련했다.

엘살바도르

넬슨 장로는 1월 14일 토요일,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성전 부지에 있는 집회소에서 엘살바도르 전역에서 온 신권 지도자들과 모임을 했다. 칠십인 회장단인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중앙아메리카 지역 회장인 칠십인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지역 칠십인 카를로스 리바스 장로, 윌터 레이 피터슨 성전 회장과 데이비드 엘 글레이저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선교부 회장이 함께했다.

넬슨 장로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과 이스라엘 목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과 성신을 끊임없는 인도자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스페인어로 출판된 새로운 후기성도판 성경의 축복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 날 넬슨 장로는 아내인 웬디 자매와 리바스 장로와 동행하여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라리베르타드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였다.

넬슨 장로는 말씀하면서 복음대로 살고 성약에 충실한 엘살바도르의 성도들과 지도자들 머리 위에 사도의 축복이 임하도록 간구했다.

니카라과

2012년 1월 18일에 넬슨 장로는 칠십인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와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장로를 동반하여 니카라과 성도들을 만났다.

그는 성도들에게 더 거룩해지고 꾸준히 가족 역사 사업을 하도록 당부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준비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전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내면에 구주의 속성을 키워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봉사를 하며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속성은 침례와 성찬식 같은 의식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들은 구주의 십자가에 달려있고 연관되는 것입니다.”라고 넬슨 장로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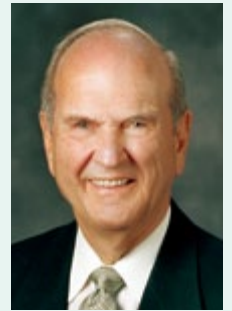
넬슨 장로가 말씀한 것과 닮아야 할 또 다른 속성은 구주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경전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경전을 읽어주십시오. 경전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의 삶에서 경전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넬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내심을 기르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넬슨 장로는 니카라과 성도들의 신앙, 헌신, 십일조와 헌물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대속에 대해 간증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다면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문을 여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라고 넬슨 장로는 말했다.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임무 수행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려면 news.lds.org와 prophets.lds.org에 접속한다. ■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를 방문하면서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복음대로 살면서 성약에 충실한 성도들에 관해 말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웹사이트가 개선되다

하나님의 의무 웹사이트인 DutytoGod.Ids.org가 청남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진척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찾고, 저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쌍방향 온라인 도구로 향상되었다.

집사, 교사, 제사들은 이제 아론 신권 소유자를 위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소책자를 50개 언어로 온라인 상에서 볼 수 있다. 자신의 LDS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차례대로 적을 기록란을 만들 수 있다. 온라인 소책자는 모든 학습 활동이 담겨 있고 경전과 다른 자료도 링크되어 있다.

청소년 사이트에서 더 많은 무료 음악을 제공하다

youth.Ids.org 음악란에서 이전 EFY 앨범에 참여한 더 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2월부터는 매주 한 곡씩 총 30곡이 더해질 것이다.

이 사이트는 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다. 더 많은 곡을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 제니 필립스의 “Strong and Courageous(강하고 담대하게)” 한 곡을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 들을 수 있다. ■



사진 촬영: 미셀 시 브라질 아마파주 마카파 지역 공보과

몰몬 도움의 손길에 참여한 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012년 1월 21일 토요일, 브라질 마카파에서 마리아 이본스 데 메네즈 주립학교를 청소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학교 환경 미화 작업에 참여했다.

몰몬 도움의 손길이 브라질 마카파 주립학교 환경 미화 작업을 돕다

교회 회원들과 그들의 친구들, 후기 성도 선교사들을 포함한 50여 명의 몰몬 도움의 손길 자원 봉사자들이 2012년 1월 21일 토요일에 청소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환경 미화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브라질 마카파 주립 학교인 마리아 이본스 데 메네즈에 모였다.

이 활동은 학교 임원진의 협조와 브라질 아마파 주 마카파 지역 공보 담당자인 클레베르 세인즈의 도움으로 그 지역의 몇몇 방송매체의 관심을 끌었고 보도되기도 했다. 학교 교장인 아델리아 다닌도 이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교회가 관대한 기부를 해주셔서 기쁩니다. 항상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새로운 몰몬경 합본이 러시아어로 출판되다

새로운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합본이 러시아어로 출판되었다.

새로운 합본은 지역 배부 센터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 상에서는 store.Ids.org, scriptures.Ids.org와 휴대기기용(모바일 앱용) Gospel Library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총 44개 언어로 합본 경전이 출판되게 되었다.

더 많은 기사와 이야기를 읽으려면 news.Ids.org에 접속한다. ■

어머니의 언어로

저는 2011년 10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리아 맥클라너한의 “모든 방언과 백성에게” 기사를 읽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저희에게 들려주시던 똑같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슬로베니아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나누고 물몬경에 대한 제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엘런 엠브리, 이탈리아

역경 속에서 강화되며

역경의 시기에 저는 *리아호나*에 실린 간증, 경험과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매달 잡지를 받으면 남편과 저는 가정의 밤을 하면서 제일회장단 메시지를 읽습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고 배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그분이 제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르띠따 데 에르난데즈, 엘살바도르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금식,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우리를 더욱 강화하는 힘**”, 10쪽 : 기사를 읽고 두 번째 쪽에 제시된 요점에 관한 생각을 나눈다. 금식은 단지 음식을 취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동반해야 하고, 간증을 나누며, 금식헌물을 바쳐야 한다. 가족들에게 금식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또한, 구약전서 에스더 4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기**”, 20쪽 : 관련 기사인 “계시의 여덟 가지 목적”을 읽고 요약한다. 그런 다음에 기사 속 이야기들을 한 번에 한 가지씩 읽고 계시의 목적을 주제로 토의해본다. 가족들에게 한 주 동안 언제 어떻게 영을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이도록

격려한다. 그 다음 주에 가족들이 배운 것을 토의함으로써 확인해 본다.

“**내 선택은 나를 어디로 이끌까?**”, 56쪽: 이 이야기를 읽거나 요약하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의 인용문을 읽는다. 가족들에게 만약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어린이 야구단에서 배운 교훈**”, 68쪽: 여러분은 “가족은 영원해”(어린이 노래책, 98쪽)을 부르며 시작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읽는다. 가족 구성원을 지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가족끼리 서로 더 잘 지지할 방법은 무엇인가? ■

가정의 밤에서의 사랑과 빛

최근 개종자로서 콜롬비아에 거주하고 있을 때 같은 와드의 아주 특별한 가족이 나를 가정의 밤에 초대했다. 개종 후 처음으로 접해본 가정의 밤이었는데 그곳에서 사랑과 신앙의 영을 경험하면서 놀랍다는 생각을 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지난주 동안 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서 활동을 했다.

불은 끈 채로 우리는 색종이로 만든 하트모양의 종이 위에 어떤 구절을 적었다. 모두가 적은 후에 전등을 켜고 각자가 쓴 것을 보여주었다. 어떤 사람의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고, 엉망인 것도 있었으며 나를 포함한 몇몇은 쓰기조차 아주 어려웠다. 생각해보니 내가 쓴 것이 가장 엉망이었다. 활동의 교훈은 아주 명확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빛이 없다면 모든 것이 어둡고, 왜곡되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이 교훈은 내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날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복음의 충만한 빛을 삶 속에서 지니려고 애쓰며 자녀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한다. ■

디나 델 피라 마에스트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우레와 같은 음성, 고요한 음성

크리스틴 보이스

선교 사업을 나온 지 몇 주 안 되었을 때, 한밤중에 '우르르' 하는 소리가 들려 잠을 깬 적이 있다. 멀리서 들리던 그 소리는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커졌다. 곧 집 전체가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진동이 그쳤고, 소리도 희미해졌다. 전에 내 동반자가 이곳에서는 지진이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모두가 무사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누웠고, 이내 잠들었다.

한밤중에 깬 그날 이후 몇 주가 지났을 무렵, 나는 사람들이 그날 새벽에 일어난 지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아무것도 듣거나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혼란스러워진 나는 마침내 언제 일어난 '지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물었다.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 그 시간에 나는 운동하거나 샤워를 했던 것 같았다.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첫 번째 지진 때에 잠을 깬기 때문에, 깨어 있을 때 다른 지진이 일어났다면 나는 분명히 그 지진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깨운 그 지진은 여러 차례 일어났다고 하는 지진 중 첫 번째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느끼지 못했기에 사람들이 지진의 개념에 대해 뭔가 혼동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지진이 아니라 생각했지만 8개월 후, 주일학교 교사가 수업 중간에 수업을 멈추고는 "다들 느꼈나요? 지진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르르 쿵쿵 하는 소리가 없었고 의자도 흔들리지 않았다. 벽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진이 있었던 말인가!

교사가 지진에 대해 말했다고 할 때, 당시 느낌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빙그르르 돌 때 느껴지는 그런 어지러움이 약간 느껴졌을 뿐이었다. 그런 미묘한 느낌이 지진일 수 있는가?

교사님 덕분에 나는 차츰 생각이 바뀌었고, 내 생각과는 달리 지진이 진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 미묘한 흔들림이었기에 운동하거나 샤워하거나 자면서 잘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다. 그 후로 점차 나는 어지러움과 미동을 더 잘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진의 증거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지진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느낀 것일까? 그
대답을 찾으면서
나는 지진학을
넘어 다른 것을
더 많이 배웠다.

선교 사업이 끝나갈 무렵에 나는 신임 선교사를 동반자로 맞이했다. 어느 날, 가르치는 도중에 한 여성이 "잠깐만, 지금 지진이에요."라고 말했다고, 나는 동의했다. 어딘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눈길로 내 동반자는 우리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매달려 있는 등잔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가리키며 그에게 시간이 지나면 땅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지진을 통해 성신을 인식하는 법에 관해 배웠고,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 부정할 수 없는 강한 느낌으로, 우레와 같이 영혼을 꿰뚫는 음성으로 성신이 찾아올 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새로운 생각, 새로운 느낌으로 오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말해야 한다고 알려 주는 미세한 느낌으로 온다.(힐라맨서 5:30 참조) 영혼이 강하게 흔들리는 순간에만 성신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성신으로부터 오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느낌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성신의 느낌이라고 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신을 집중하고 감각을 민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때, 깨달음과 경이로움이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것이다. ■



© 2011 JAMES C. CHRISTENSEN, ALL RIGHTS RESERVED. LICENSED BY THE GREENWICH WORKSHOP, INC.

덕, 제임스 크리스텐슨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교리와 성약 121:45~46)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정결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이 지금 시대의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남으려면 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용기를 가지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5쪽)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신권 권세는 성임을 받음으로써 오지만, 신권 권능은 충실히 성약을 지키고 성약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에야 얻습니다. 이 힘은 신권을 의롭게 행사하고 사용할 때 더욱 커집니다.”라고 가르친다.
본문 28쪽, “신권의 영광과 질서” 참조.